COVID 19
마음방역
현대불교
2020년 4월 8일 수요일 제 1288 호

꽃에게 안부를 묻다

다들 잘 있을까. 거짓말 같은 시절. 꽃은 피건만 계절은 없고, 저녁은 있건만 잠들지 못하는 세상. 나서는 식구의 뒷모습에 부적을 쓰고, 거짓말 같은 부고들로 하루가 간다. 어디서 왔을까. 이 시절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 볼 수 없고 멀찍이 걸어야만 하는, 어둡고 무거운 이 시절은 어디서 왔을까. 거짓말이었으면….

따뜻한 말 한 마디 주고받을 수 없는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모두가 아픈 오늘. 병실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환한 꽃다발 품고 서로의 병실을 찾자. 언젠가 거짓말처럼 끝날 일이라 믿으며, 그렇게 희망의 법문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병실을 찾자. 이 봄이 가기 전에, 저 꽃들이 지기 전에.

죽음이 삶이 된 이 시간에도 돌아온 꽃들로 계절은 자라고 따뜻한 바람으로 풍경은 넓어진다. 우리 예전처럼 마주앉아 깊은 계절이 되고, 손잡고 걸으며 따뜻한 풍경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모두에게 꽃을 보낸다. 모두의 안부를 묻는다. 다들 잘 있기를….

글 · 사진=박재완 기자

〈마음방역 관련 특집 2 · 3면〉

그림엽서 보시로
'마음방역'하는 스님들

붉은 호랑이 禪畵, 삿된 기운 물리친다



'호랑이 엽서' 보시한 수안 스님

밝은 빛 상징하는 붉은 호랑이
코로나19 극복 · 희망 전하고자
'척사현정' 문구 넣어 엽서 제작
전국 사찰 등에 34만장 보시해
현 상황 해결하는 힘은 '자비심'

"붉은 호랑이는 빛을 상징합니다. 붉음은 빛입니다. 낮의 태양처럼 붉고 밝은 것이지요. 호랑이는 보호를 의미합니다. 저희는 대대로 산 아래 마을을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호랑이는 산을 지키는 산신을 상징하며 강한 힘으로 보호하고 이끌어주는 존재였습니다."

선(禪)의 세계를 그림으로 담는 선서화의 대가 수안 스님이 코로나19에 대해 지녀야 할 가르침을 그림엽서에 담아 전달했다. 경면주사를 갈아 그린 붉은 호랑이 그림으로 엽서와 명함 크기로 제작 돼 전국 곳곳에 전달됐다. 처음에 12만장이 인쇄됐고 그 뒤 17만장이 제작돼 전달됐지만 스님은 그 수를 세어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미 그 수는 넘었을 것이란 예측이다. 수안 스님을 3월 25일 양산 문수원에서 만났다.

스님이 코로나19 사태를 직접 경험한 것은 호주 시드니에서 돌아온 직후였다. 스님은 호주 시드니에서 한국인 1세대와 2세대를 위한 복지 양로원 건립을 위해 전시 및 후원 활동을 하다 입국했다. 한국 공항에 도착했을 때 대구에서 터진 신천지 사태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는 시점이었고 스님은 마스크를 낀채 통도사 아래 위치한 문수원으로 돌아와야 했다.

붉은 호랑이 선화(禪畵)를 그린 날은 3월 4일 새벽이다. 새벽 정진을 하며 깨달은 바를 불자들에게 전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었다. 무엇보다 정진을 멈추지 말고 희망을 잃지 않기를 소원했다.

"새벽에 정진을 하던 중 나에게 누군가 질문을 하는 것처럼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성불을 하면 그 경계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팔정도' 였습니다."

당시 신천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사회적 지탄이 종교를 향해 쏟아질 때였다. 스님은 작품 왼편에 '척사현정(斥邪顯正, 삿됨을 배척하고 올바름을 세운다)' 를 적었다.

"종교의 본질을 얻기 위해선 바른 길(팔정도)을 잃으면 안 됩니다. 번뇌와 망상이 정법을 잊게 합니다. 정법이 중요합니다. 영생이나 삿된 가르침 그리고 이적 행위에 현혹되면 안됩니다. 종교의 본질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몸에 지니면서 마음에 새겨야 할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시작된 일이다. 정법으로 삿됨을 멀리하고 이웃을 보호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함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이후 스님과 평소 인연이 있는 스님들과 불자들은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후원을 시작했다. 신도들은 전국에 힘든 분들이 스님의 가르침을 받아 바른 한 생각을 떠올리길 기원했다.

수안 스님은 "호랑이가 영물이다. 코로나19를 잘 걷어내 다른 곳으로 옮겨주길 바라는 마음도 담았다"며 "코로나19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끝까지 정진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정법을 설명하며 함께 지녀야 할 가르침으로 '자비' 도 강조했다. 수안 스님이 강조한 자비에는 끝이 없었다. 자비의 대상으로 스님은 '코로나19' 도 언급했다. 병을 일으키는 균에게도 자비의 마음을 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스님은 "쳐부순다는 마음으로 대상을 보면 안 된다. 자비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우리 몸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다. 두 가지가 공생하면서 한 몸을 이뤄낸다"며 "공(空)을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다. 깨달은 자의 마음으로 공의 세상을 보고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한다. 작은 세포 하나, 원소 입자에도 불성은 있다. 실수하는 아이를 안아주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듬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왜 '마음방역' 인가

일상된 '불안 · 분노' 마음 치유가 필요

일상이 사라졌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초 · 중 · 고교의 개학이 연기됐고, 외출 · 산책 · 여행 · 공연과 같은 평범한 일상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다.

코로나19 확산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 일상이 정지된 지금, 많은 사람들은 불안과 분노에 점령됐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연구팀이 국민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뉴스와 정보를 접하고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 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8.8%가 '불안' 을, 21.6%가 '분노' 를 느낀다고 답했다. '충격(12.6%)' 과 '공포(11.6%)' 에 감정을 느끼는 응답자도 적지 않았다.

사회적 거리두기과 손 씻기 등 신체적 방역만큼 이제는 심리적 방역의 중요성도 점차 부각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역시 지난 3월 1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자가격리자와 일반 국민들이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심리상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면서 심리 방역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불안, 분노에 점령된 국민들의 일상을 이젠 희망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그 역할은 '힐링의 종교' 인 불교가 나서서 맡아야 한다.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고 말했던 유마거사의 대승불교 정신은 현재 상황에서 불교가 나아갈 방향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제 불교는 '마음방역' 에 나서야 한다.

신성민 기자

"공포 · 원망 녹이는 '신중파워' 받아보세요"

'다워니 신중파워' 보시한 서주 스님

매년 '신중파워' 그려서 전달
올해엔 '코로나19 극복' 담아
폐친 대만불자도 스티커 보시
타종교인 등 40여 명 신청해
"'다워니 신중'보며 위로받길"

서주 스님이 그리는 카툰은 '따뜻한 감성' 이 느껴진다. '다워니' 이라는 동자승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절로 입가에 미소가 번지게 된다. 매년 봄 입춘 즈음에는 '다워니' 동자승은 신중님으로 변신한다. 그리고는 '신중파워' 를 작가 서주 스님의 SNS를 통해 쏘아준다. 온라인으로 만났던 다워니 동자승 '신중파워' 를 올해에는 오프라인에서도 만날 수 있었다. 코로나19 극복의 의미를 담은 다워니 동자승 '신중파워' 를 서주 스님이 그림엽서로 만들어 보시했기 때문이다.

현재 주석하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 석가사에서 만난 서주 스님은 "정말 우연한 계기로 그림엽서를 제작 · 보시하게 됐다"고 말머리를 풀었다.

스님이 그림엽서를 만들게 된 계기는 스님의 페이스북 친구 대만인 불자 진모결(陳玥潔) 씨 때문이다.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는 시기에 진모결 씨는 서주 스님의 메신저로 " '신묘장구대다라니(대비주)를 배경으로 직접 기도하며 그린 관세음보살을 귀엽게 얹어서 스티커를 만들었다"며 "매일 신묘장구대다라니와 반야심경을 기도하며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스님은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보시에 동참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병마소멸 · 한국인의 안락을 발원하는 진모결 씨의 스티커와 저의 '2020년 신중파워' 그림엽서를 함께 담아서 필요한 분들에게 보시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 페이스북에 내용을 공지했죠."

스님의 공지에 약 40여 명이 신청했다. 신청 사연도 다양했다. 스스로 날라리 개신교인이라고 소개한 신청자는 "치료 중인 불자 친구에게 엽서를 보내주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고, 군인 아들에게 보내주고 싶다는 어머니도 있었다. 약 1주 간의 모집 기간을 거쳐 스님은 지난 3월 20일 신중파워 엽서와 스티커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평소 스님의 그림을 좋아해주는 도반들에게도 보냈다.

올해 입춘 그림엽서에서 다워니 신중은 민들레 홀씨로 분한 신중파워를 세상에 내보내고 있다. 서주 스님에게 코로나19로 이번 신중파워 그림엽서의 의미를 물었다. 스님의 답은 '대자비심' 이었다.

"중국 위앙종 9대 조사인 선화 상인은 능엄신주에 대해 이렇게 법문합니다. '불교에서 주력을 하는 것은 악하고 삿된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비심으로 섭수해 소멸하기 위함' 이라고요. 현재 사회 분위기는 공포-불안-원망 · 혐오의 악순환에 있습니다. 원망과 혐오로는 작금의 사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악화만 시키죠. 자비심으로 주위를 돌보자는 서원을 담아 '신중파워'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가 그린 다워니 '신중파워' 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으면 합니다."

서주 스님은 매일 석가사 대중 스님들과 '능엄주' 3독과 코로나19 극복 발원문을 봉독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기도에는 따뜻한 자비심 속에 현재의 위기를 잘 넘기길 바라는 마음이 담겼다.

"능엄주는 세상의 모든 독을 소멸하는 신비한 힘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매일 열심히 기도하려 합니다."

신성민 기자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을 99.9% 정균 감소하는 치약(ORAL MATE®)·비누(BLOOD M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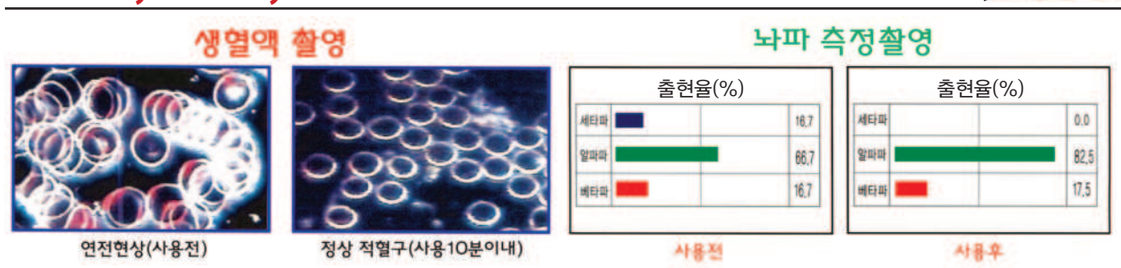
BLOOD MATE® (비누), ORAL MATE® (치약)의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에 의한 항균시험 시험성적서

개발자 체험담
◉ 매년 겨울만 되면 감기로 고생했는데 BLOOD MATE®(비누) 거품으로 코 속을 마사지하여 감기를 잊어버린(나은) 경험.
◉ 비염, 축농증으로 코막힘이 심하고 누런 콧물이 자주 나왔는데 BLOOD MATE®(비누) 거품으로 코 속을 마사지한 후부터는 코가 뻥 뚫리고 누런 콧물이 없어졌다.
◉ BLOOD MATE®(비누) 거품으로 눈동자를 마사지하고 나서부터는 안경을 써야 볼 수 있던 신문을 안경 없이 볼 수 있고 눈동자에 힘이 생겼다.
◉ 개발자인 41년 3월생 남자 본인은 ORAL MATE®(치약)을 양치 후 뱉어내지 않고 삼켰더니 식중독, 소화불량, 배탈, 설사가 없고 이틀에 한 번씩의 샤워로 6년 동안 감기, 몸살을 앓아 누워본 적 없다.
◉ 잇몸이 아프거나 이가 시릴 때에는 ORAL MATE®(치약)을 부위에 발라주면 통증이 그냥 없어진다.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을 99.9% 정균 감소하는 치약(ORAL MATE®)을 양치 후 뱉어내지 않고 그대로 삼키면

1. 폐렴균에 의한 질환 개선. 2. 식중독, 소화불량, 배탈, 설사를 예방. 3. 과식, 과음시에는 소화제나 숙취해소 약을 먹는 것 보다 속이 빨리 편해지고, 술이 빨리 해독되면서 정신이 맑아진다.
4. 별도의 잇몸약이 필요없을 정도로 잇몸이 튼튼해지며 이나 잇몸이 아플때에는 치약을 아픈 부위에 발라 놓으면 밤새 통증이 사라진다.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을 99.9% 정균 감소하는 비누(BLOOD MATE®)를 단 한번 쓰고, 연전현상의 적혈구가 정상적 적혈구로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보약을 먹은것도 아니고 주사를 맞은것도 아닌데 BLOOD MATE®비누를 단 한번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연전현상의 엉켜있는 적혈구가 정상적혈구로 뇌파가 안정되며,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허리, 목, 어깨의 통증과 다리에 쥐가 나는것을 개선하는 효과.

포도상구균(화농성 세균)을 99.9% 정균 감소하는 BLOOD MATE®비누는 아토피, 무좀, 가려움증, 비듬, 발뒤꿈치각질, 체취 등 각종 피부질환을 없애주고 때를 일부러 밀지않고 거품으로 마사지하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 보습과 투명피부의 효과로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는다.

BLOOD MATE® 강비누: 25,000원2개 = 50,000원
BLOOD MATE® 순비누: 15,000원5개 = 75,000원
ORAL MATE® 치 약: 21,000원3개 = 63,000원
~~188,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세정제인 비누, 치약이 별도의 추가부담없이 비누는 피가 맑아져 혈액순환 정상화에 의한 피부질환 개선, 치약은 잇몸건강은 기본이고 소화불량, 식중독, 배탈, 설사가 없어진다면 이는 정부가 생산활동을 막을것이 아니라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보호하고 장려 육성하는 것이 국가의 올바른 정책입니다.

마음방역 Talk

마가 스님 상생 의미 되새길 기회
가족 신행, 방역 첫 시작 자우 스님

전세계가 코로나를 시름시름 앓고 있다. 몸도 힘들지만 마음도 힘들다. 매일 매일 쏟아지는 코로나 관련 뉴스를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불안하고, 우울해 짐을 느낄 것이다. 코로나 종식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국민 힐링멘토 마가 스님과 자우 스님을 만나 마음을 치유하고, 코로나로부터 발생되는 부정적 감정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마음방역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노덕현 기자**

기자: 자가격리, 재택근무 등을 많이 하면서 사람 만나는 것도 줄고, 마스크를 끼고 다니다 보니 서로 얼굴을 봐도 감정이 잘 안느껴지고 그러네요. 무엇보다 이런 모든게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마가: 현재 우리 사회가 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란게 원래 참 힘든겁니다. 사람은 사람을 만나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의 위치를 찾아가죠. 코로나는 몸의 병이기 때문에 의료진의 도움으로 치료가 된다고 해도 계속된 거리두기는 마음의 병을 키울 수 밖에 없어요.

자우: 맞아요. 스님들은 워낙 조용하게 있다보니 그래도 조금은 괜찮은데 대중들은 항상 바깥으로 향하다가 충격을 받는 것 같아요. 스스로를 돌아보는 수행의 시간이 되지만 일반인들은 습관이 안 돼 힘들 거예요. 신도님들을 보면 평소 활발했던 사람일수록 더 답답하다고 해요. 이제 2달 가까이 되어 가는데 한계에 부딪힌 것 같아 보여요.

기자: 일반 뉴스를 보면 긍정적인 부분이 거의 없는 것도 큰 것 같아요. 대부분 코로나 확산 방지와 경제대책들인데, 계속 이런 소식을 접하다보니 그 것 자체로 더 우울해집니다. 사회적으로도 공포, 불안 같은 감정이 퍼져 나가는 거 같아요.

자우: 개인적으론 마음이 평온하더라도 사회공동체의 감정이 부정적으로 흐르면 이게 결국 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개인에게 사회적 감정의 파도가 밀려올 때는 스스로 마음을 지키는 이른바 '마음방역'이 필요해요.

마가: 지금 필요한건 마치 '마음마스크'를 쓰는 것이랄까요. 길게 보면 코로나 또한 지나갈 문제인데, 불안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내면의 성찰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살피지 않으면 각자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더 큰 혼란에 빠질 것 같아요. 사회적 불안감이 계속 높아지면 사재기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차별, 증오와 같은 일종의 혼란에 빠지기 쉽겠죠.

기자: 갑작스럽게 우리의 삶을 바꾸고, 그로 인해 힘들다보니 저는 원인을 자꾸 밖에서 찾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시작된 국가도 원망스럽고,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번지게 됐는지도 원망스럽고…

마가: 반대로 이번에 우리는 개개인으로 존재했다고만 여겼는데, 오히려 이웃과 공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는 기회에요. 이웃종교계에서 방심해서 집단감염이 됐지만, 그들만을 원망하기에는 너무나 일이 커져버렸어요. 국가와 국가 간에도 니네나라 내나라 따지다보니 대응이 늦어졌죠. 지구촌 공동체가 한 몸이라는 생각에서 대응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너와 내가 다르지 않고 하나다'는 부처님 가르침에 집중해야 합니다. 서로가 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자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가 중요하죠. '왜 그런거야' 하면서 원망하는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되요. 내가 무엇을 미워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을 해야하는지가 중요하죠. 부처님께선 독화살에 맞았을 때 화살을 빼낼 방법을 궁구하라고 하셨죠. 지금 우리는 '화살 누가 쏜거야, 어느 놈이야' 이럴 시간이 없어요. 밖으로 향한 마음을 틀어 주어야 해요. 저는 거기에 바로 종교, 불교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무악재에 있을 때 텃밭을 가꾼 적이 있어요. 팥 한 알을 심었는데, 꽃이 피고 가을에 수확을 했는데 몇 알이 나왔게요?

기자: 한 100개? 나왔나요?

자우: 더 쓰세요. 하하. 700개에요. 그 700개가 떨어지면 얼마나 많은 팥알이 될까요. 사람마음도 같다고 생각해요. 한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얼마나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원망을 해도, 그 사람들이 코로나 확산시키고 싶어서 그렇게 했나요. 실수죠. 그런 실수는 누구한테나 올 수 있어요. 나한테도 올 수 있죠. 어쩌면 이 코로나가 우리 미래에서 뒤돌아 본다면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어요. 메르스 때 우린 너무 힘들었죠. 그런 경험이 지금 세계적 우수 방역으로 이어졌어요.

못다한 Talk는 인터넷 hyunbulnew.com에서 이어집니다.


마가 스님
자비명상 대표

기자: 그러면 스스로 마음을 지키는 방역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구체적인 어떤 방법을 일러주세요.

자우: 불자들 같은 경우는 경전을 많이 읽는 게 있겠죠. 제안하고 싶은 건 가족끼리 경전을 읽고 사경 같은 걸 해보는 거죠. 함께 수행하다보면 조금씩 더 화합하고, 마음도 넓어질 거에요. 저 같은 경우는 〈화엄경〉을 매일 보고 있어요. 세계성취품을 보면 업에 대해서 말해요. 각자의 업에 따라 마음 세계가 다르고, 그것이 이 세계에 영향을 주죠. 그럼 우리의 업력을 좋게 만들어야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예경이에요. 가족이 함께 108배를 한다거나 하면 이보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림이나 사진, 조각상 등으로 부처님 형상을 모시고 코로나로 피해받는 이들에 마음을 조금은 더 써보세요. 참 마음이 편해질 거에요.

마가: 불자가 아닌 분들은 명상을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두려움이 몰려오면 이겨내려고 부단히 힘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수렁에 빠진 사람이 더 깊이 들어가듯이 두려움이 커질 수가 있어요. 모든 몸에 힘을 쭉 보고 관찰자 시점에서 바라보세요. 내가 나를 객관화해서 주시자로 보는겁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 모든 과정이 보이는데 '아하!' 원인과 결과가 드러날 겁니다. 원인과 결과가 보이면 내가 무엇을 해야되겠구나 하는 행동 방향이 서요. 자우 스님이 말씀하셨듯이,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법이 와닿습니다.

눈 감고 숨을 깊이 3번 들여마셔보세요. 호흡명상인데, 평온해 질 때 그 속에서 있어보세요. 무엇인가 하려는 마음을 잠깐 멈춰보세요.


자우 스님
비로자나 국제선원장

모두가 힘들 때, 선지식들은 무슨 법문 했을까?

선지식들은 대중들이 힘들 때 대중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많은 어록을 남겼다.

법정 스님은 외환위기 당시 "한 마음 밝게 먹으면 밝은 세상이 열리고, 한 생각 어둡게 몰고 가면 끝없는 구렁으로 떨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고마운 '다리'도 놓여 있지만, 예측할 수 없는 '함정'도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온갖 비극 씨앗은, 눈앞에 놓인 일에만 생각이 콕 박혀서 한 생각 어둡게 먹기 시작한 데서 싹 틉니다. 속지 말 일입니다"고 말했다.

대행 스님도 외환위기 당시 법문을 통해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님은 "허허바다에 배를 타고 가는데, 배에 탄 사람은 선장을 믿고 선장한테 의지하고 가만히 흔들지 말고 앉아 있어야 가는 데까지 가는데, 배에 앉아 가지곤 야단법석을 한다면 배는 뒤집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자기의 마음의 선장을 진짜로 믿는다면, 그냥 하나로 믿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산다.' 이런 마음으로 가만히 지켜보면 가는 데까지 그냥 능히 갈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법문했다.

달라이라마는 망명 중에도 희망을 얘기했다. 달라이라마는 "이 세상에 살아 숨쉬고 있는 한 문제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희망을 잃고 좌절하면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뿐 아니라 모든 이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와 같은 현실적인 시각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투지와 수용 능력을 키워줄 것입니다"고 했다.

국난의 위기에서 서산대사는 "그들의 마음 밭에 자네 추억 씨앗 부려 사람 사람 마음속에 향기로운 꽃 피우면 극락이 따로 없다네"란 말을 남기기도 했다.



사경,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된다

문화재청 지정예고… 보유자 김경호 원장 인정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경(寫經)’은 불교 경전을 옮겨 적어 널리 전하기 위해 이뤄진 기술이었다.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사경은 공덕을 쌓는 수행이 됐다. 수행이자 예술인 ‘사경’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불경을 쓰는 기술을 가진 장인인 ‘사경장(寫經匠)’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하고, 김경호 한국전통사경연구원장을 보유자로 인정 예고했다”고 4월 1일 밝혔다. ‘사경장’은 불경(佛經)을 쓰는 사경(寫經) 기술을 가진 장인을 의미한다.

사경 제작은 크게 필사(筆寫), 변상도(變相圖) 제작, 표지 장엄 세 가지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는 △금가루 발색 △아교 만들기 △종이의 표면 처리와 마름질 △잇기 △선긋기 △경 필사 △변상도 그리기 △표지 그리기 △금니 표면처리 등 10여 가지 공정을 거친다.

사경 제작에는 서예 · 한문 · 불교 교리 · 회화 등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기능이 필요하다. 사경이 수행과 예술이 접목된 종합예술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한, 경전의 오자 · 탈자가 없어야 하므로 고도의 집중력과 장기간의 제작 시간이 필요하다.

불경 보급 목적으로 시작
인쇄 발달하며 수행 정착
서예 · 회화 접목 종합예술

김경호 원장 첫 보유자로
고려 전통 금니사경 복원
40년간 사경 전승에 힘써



우리나라 사경의 역사는 불교가 전래된 삼국시대부터 시작된다. 당시에는 불경을 세상에 널리 보급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신라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국보 제196호)’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경 유물이다.

이후 8세기 중엽 목판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점차 스스로 공덕(功德)을 쌓는 수행으로 변화했고,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국교로 공인되면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며 사경은 전성기를 맞았다. 실제 〈고려사(高麗史)〉 등에 따르면 국가에서 사경을 전문으로 제작하는 기관을 운영하였고, 당시 사경은 국가 최고의 역량을 동원한 당대 문화의 집합체였다.

특히 ‘감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보현행원품(국보 제235호)’ 등 금자(金字) · 은자(銀字) 형식의 사경이 많이 제작되었고, 충렬왕 대에 중국에 수백 명의 사경승(寫經僧)을 파견하는 등 대외적으로 고려 사경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졌다.

조선 시대에는 숭유억불(崇儒抑佛)의 기조가 유지되면서 쇠퇴하였으나, 일부 왕실과 사찰에 의해서 명맥은 유지됐다.

첫 ‘사경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김경호 원장은 지난 40여 년간 사경 작업에 매달려온 장인이다. 1997년 조계종에서 개최한 ‘제1회 불교사경대회’에서 대상을 받고, 2010년 ‘대한민국 전통사경기능전승자’로 선정됐다.

김 원장은 오랜 기간 문헌과 유물을 통해 사경의 재료, 형식, 내용을 연구하고 이를 기술로 승화시켰다. 또한 각종 교육 기관에서 사경 관련 강의를 하고 다년간 연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 서적을 저술하는 등 사경 전승을 위한 활동에 매진했다. 아울러 전통 사경체(寫經體)를 능숙하게 재현할 뿐만 아니라 변상도 등 그림의 필치가 세밀하고 유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김 원장은 “사경장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예고는 700년 간 단절됐던 사경을 복원 · 전승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첫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것에 대해서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찬란한 전통의 사경을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예술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을 예고한 ‘사경장’과 보유자로 인정을 예고한 김 원장에 대해서 4월 30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 · 검토하고,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과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 호산 스님 선임

감사에 일화 · 원명 스님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에 호산 스님(수국사 주지 · 사진)이 선임됐다. 감사에는 일화(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 원명(조계종 중앙종회의원)스님이 선임됐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성우)는 3월 27일 제328차 이사회를 열고 신규 임원으로 호산 · 일화 · 원명 스님을 선출했다.

지난 2월 18일자로 사임한 이사 현문 스님의 후임 이사 선출은 후보자가 추천되지 않아 이월됐다.

이번 이사와 감사 선임은 지난 3월 10일 열린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제116차 회의에서 추천된 후보자 범위 내에서 선출하고 추후 중앙종회 동의를 받는 것을 전제로 이뤄졌다.

이사회는 또 서울캠퍼스 불교대학 내 문화재학과를 신설키로 결의했다.

한편,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과 상임이사 성월 스님이 학교 발전을 위한 기금을 쾌척했다.

신성민 기자

코로나19 극복 전방위 지원 ‘눈길’

조계종 포교원, 불자의료진 격려
취약계층 지원도 전국서 잇따라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전국 불교계가 지원에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조계종 포교원과 광주불교연합회 전달식, 진안 쌍봉사 자원봉사 현장.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불교계가 감염예방을 위한 물품과 성금 전달은 물론, 각 분야에 심리적 위로를 전하는 활동을 전개해 주목된다.

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지홍)은 3월 30일 전국병원불자연합회(회장 류재환)에 불자 의료진을 위한 의식집과 염주, 약사여래불 호신카드 등을 전달했다. 이번 물품 전달은 교대근무 속에 지친 불자의료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400여명의 병불연 회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지홍 스님은 “누구보다 많은 고생을 하는 의료진들이 부처님 가르침과 신심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위문품을 준비하게 됐다”며 “병든자를 고치는 가르침이 담긴 약사여래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코로나19를 잘 방어해 이른 시간 내에 종결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단법인 위드아시아(이사장 지원)는 3월 27일 서울 구로구청 청장실에서 마스크 2만6000장을 전달했다. 위드아시아는 향후 구로구 관내 취약 계층을 위한 밑반찬 전달 등 복지사업을 전개하고 탈북 청소년 장학금 지급, 다문화 가정 청소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지원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천태종 나누며하나되기(이사장 도웅, 천태종 사회부장)는 그동안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자비나눔 행사를, 일시적으로 코로나19 극복지원을 위한 나눔으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3월 29~30일 6차 전달식을 열고 서울에 위치한 몽골과 네팔, 캄보디아 법당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고급물티슈, 템플스테이 이용권 등 자비물품을 전달하는 등 재한 이주민법당과 북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예방물품을 지원했다.

부산 기장군불교연합회(회장 정오)도 3월 31일 부산 기장군청 군수실에서 취약계층 및 소외이웃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성금 전달식에는 기장불교연합회 회장 정오 스님, 수석부회장 법안 스님, 부회장 보광 스님을 비롯해 오규석 기장군수가 참석했다.

부산 천태종 광명사(주지 개문)는 3월 27일 금정구청에서 ‘금정구 관내 한부모 가족들을 위한 한시적 생계비(100세대)’ 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전달했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는 광명사 주지 스님과 신도들의 자리이타 정신에 깊이 감동 받았다.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동현)는 3월 24일 광주시청을 방문해 광주지역 사찰스님들이 십시일반 모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1000만원’을 전달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기금은 광주시청을 통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되며, 향후 코로나19 극복과 어려움 겪는 사회시설에 지원된다. 전달식에는 광주불교연합회장 동현 스님, 수석부회장 도계 스님, 부회장 도성 스님, 운영위원 소운 스님, 해청 스님을 비롯해 이용섭 시장, 한상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동현)와 남구청 불자회(회장 박귀환)는 이어 3월 26일 남구청(청장 김병래)을 방문해 코로나19 지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정읍 일광사(주지 승천, 광주 교정청 교정연합회 수석부회장)도 3월 18일 코로나19 예방 및 극복성금 500만원을 전달했으며, 칠성사(주지 영명)도 3월 26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된 이웃을 위해 성금 525만 3000원을 전주시에 기탁했다. 진안 쌍봉사(주지 보경)와 섬김봉사단(단장 양행금)은 3월 29일 필터교체용 면 마스크 제작 자원봉사에 나서기로 했다.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원행)에도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성이 속속 답지하고 있다. 주식회사 세원종합관리(회장 정화찬)는 3월30일 불교계 감염예방을 위한 살균소독수 3톤 분량을 지원했으며, 화성 용주사는 코로나 극복기금 1000만원을 , 법보신문사와 일일시호일이 400만원을 전달했다.

노덕현 · 송지희 기자,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조동제 전북지사장, 양행전 광주전남지사장

종평위, 총선 앞두고 종교평화 캠페인

정교분리 · 차별금지 강조

4.15국회의원총선거를 앞두고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도심, 이하 종평위)가 종교평화 캠페인에 돌입했다. 선거 과정에서 종교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지양하고 정교분리 및 차별금지 원칙을 준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종평위는 최근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서 치러질 총선과 관련해 종교평화와 차별 금지를 강조하는 공문을 주요정당에 발송했다”며 “종교평화 캠페인의 일환으로 같은 내용을 담은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교구본사와 주요사찰 등에 배포해 신도와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 중”이라고 밝혔다.

각 정당에 발송한 공문에는 총선에 참여하는 각 정당 후보자들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헌법 제20조에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을 준수하고 불필요한 종교간 갈등을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포스터에는 선거를 넘어선 사회화합과 통합의 가치를 강조하는 문구를 담았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 하안거 결제 6월 6일로 연기

〈윤4월 15일〉

수좌회, 전국 선원 공문 발송
국가 · 종단지침 발맞춘 결단
6월 6일~9월 2일로 변경돼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안거 정진 중인 스님들의 모습.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하안거 결제일이 한달 연기된 윤4월15일로 변경됐다.

올해 조계종 하안거 결제일이 윤4월 15일로 한달 연기됐다. 코로나19 여파로 부처님오신날이 윤4월 8일 기준으로 연기된데 이어, 전국선원수좌회가 이례적 결단을 내렸다.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대표 의정 · 영진)는 3월 23일 전국 선원의 유나 · 선원장 스님을 대상으로 '경자년 하안거 입제 일정 변경 협조의 건' 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올 하안거 일정을 한달 연기한 윤달 음력 4월 15일(양력 6월 6일)을 입제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국선원수좌회는 공문 발송에 앞서 전국 선원의 구참 · 선원장 스님들에게 전화로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수렴절차를 거쳤으며, 90% 이상의 스님들이 현재 시국을 감안해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수좌회는 스님들의 여론을 반영해 통신회의를 거쳐 하안거 결제일을 변경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일선 선원들은 수좌회 권고사항을 존중하는 가운데, 각기 상황에 맞게 일정을 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문 발송에 앞서 선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올 하안거 일정은 상당부분 변경될 전망이다.

수좌회는 공문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전세계는 물론, 국내 또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각 학교의 개학이 다시 연기되고 경제가 어려워지는 등 국민들의 불안과 고통이 지속되는 가운데 종단에서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를 음력 윤4월8일인 4월40일로 연기한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수좌회는 "하안거 일정 변경을 통해 최상승 납자들이 코로나19에도 의연하고 청정하며 국민건강을 우선하는 지혜로운 모습으로, 세계인과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선원수좌회 지침이 공문을 통해 공표됨에 따라, 전국 조계종 선원들은 올 하안거 일정 변경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침 수용시 입제일은 6월6일, 해제일은 9월 2일로 변경된다.

수좌회 대표 의정 스님은 "코로나19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종단이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가의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며 "종단의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와 극복을 위한 지침' 이 내려진 후 선원수좌회로 수좌들의 문의가 이어졌고, 수좌회 역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와 종단과 발맞춰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안거 일정을 변경키로 한 것은 사실 수좌회로서는 대단히 이례적이고 적극적인 결단"이라며 "그럼에도 정부와 종단지침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선원에 방부를 들일 수좌들의 안전한 수행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결단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안거 일정의 경우 전국선원수좌회가 일정부분 관할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후 각 선원의 사정에 맞게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수좌회의 이번 결정은 큰 틀에서 종단 지침을 수용한 결과이기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4월 2일 4차 긴급지침을 시달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사찰에 법회 중단 등을 권고한 지침 시행기간을 4월 19일까지로 연장했다.

고창 선운사 만세루 보물 승격된다

문화재청, 지정 예고… 조선 사찰공간 변화 보여줘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 만세루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 ·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전북 고창군에 있는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53호 '선운사 만세루' 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선운사 만세루는 1620년(광해군 12년)에 대양루로 지어졌다가 화재로 소실된 것을 1752년(영조 28년)에 다시 지은 전각이다. 정면 9칸, 옆면 2칸 규모의 익공계 단층건물이며, 맞배지붕으로 현재까지 잘 보존돼 있다.

처음에는 중층 누각구조로 지었으나 재건하면서 현재와 같은 단층 건물로 바뀐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누각을 불전의 연장 공간으로 꾸미려는 조선 후기 사찰공간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만세루의 특징은 사찰 누각으로는 가장 큰 규모인 정면 9칸이라는 점이다. 현존하는 사찰 누각은 대체로 정면 3칸이 주류이고, 5칸이나 7칸 규모도 있으나, 만세루처럼 9칸 규모는 흔치 않다.

만세루 가운데 3칸은 앞뒤 외곽기둥 위에 대들보를 걸었고, 좌우 각 3칸에는



조계종 제24교구 선운사 만세루 전경.

가운데에 각각 높은 기둥을 세워 양쪽에 맞보를 거는 방식을 취했다. 하나의 건물 안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보를 걸어 구조의 안전을 꾀하고 누각의 중앙공간을 강조한 특징이 있다.

문화재청은 "선운사 만세루는 조선후기 불교사원의 누각건물이 시대 흐름과 기능에 맞추어 그 구조를 적절하게 변용한 뛰어난 사례"라면서 "동시에 구조적으로 독창성 가득한 건축을 만들어낸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고 지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은 선운사 만세루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부산 연등축제 '코로나 19 극복 기도'로 장엄

축제조직위, 송상현 광장서
4월 30일~5월 28일 봉행

전통등 전시 및 릴레이기도
사회 속 바른 역할 제시 모범



부산불교는 부처님오신날 제등행렬과 연합대회를 취소하고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장엄등을 밝히고 릴레이 기도를 실시한다. 사진은 지난 해 점등식 자료사진.

부산 불교가 시민들의 안녕과 건강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부처님오신날을 상징하는 연등행렬과 봉축연합대회를 모두 취소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도하며 지혜를 상징하는 법등(法燈)만을 밝힌다. 오직 국민들의 건강과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이다. 아울러 부산불교는 4월 30일~5월 28일 총 29일 간 치유를 위한 기도에 앞장서며 부처님이 이 땅에 나투신 참된 자비 정신을 밝힌다.

부산연등축제조직위원회(위원장 경선)는 3월 26일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산연등축제' 는 코로나19 극복과 부산발전 및 안녕을 위한 릴레이 기도정진과 전통등 전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무총장 정산 스님은 "봉축연합대회와 연등행렬을 취소하기까지 회장 스님 및 임원진들의 고뇌와 토론이 있었다"며 "하지만 시민들의 건강과 나라의 안녕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부산연등축제로 마련되는 '전통등 전시' 는 4월 30일~5월 28일 송상현 광장 일대에서 진행되며, 점등식은 4월 30일 오후 6시 송상현광장 특설 무대에서 개최된다. 전통등은 대형 장엄등 100여점이 전시되며 각 사찰에서 마련한 사찰 출품등, 각종 구조물, 거리등이 화려하게 도시를 수놓을 예정이다. 아울러 부산 16개구 · 군 불교연합회에서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며 각 구군에 장엄등을 밝힐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부산연등축제조직위원회는 점등식도 최소한의 인원으로만 진행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을 위해 체험 부스도 마련하지 않는다. 방문하는 시민들에겐 거리 지키기를 강조하며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는 소원지 작성에만 동참하도록 권유한다. 소원지 작성과 더불어 조직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한 자비나눔실천운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릴레이기도 입재는 점등식 당일이며 29일 간 매일 오후 6시 송상현 광장 특설무대에서 진행된다. 릴레이기도는 16개 구 · 군 불교연합회 스님들과 종단 대표들이 담당하며 신도들은 참석할 수 없다. 스님들은 부산발전 및 안녕을 발원하며 보배경과 약사여래경 정진으로 기도에 앞장선다. 신도들의 안전을 위해 조직위원회는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로 기도 동참을 권유하고 각자 집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이 기간동안 각 사찰에서도 기도는 이어진다. 봉축을 기념하는 4월 30일~5월 30일 동안 부산 전 사찰은 사시예불에서 보배경과 약사여래경 정진으로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한다.

사무총장 정산 스님은 "종교가 사회 속에서 갖춰야 할 바른 역할을 제시하고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해인사, 마애약사불 기도법회 시작

4월 4일 오후1시 첫 법회
유튜브 '해인사 TV'로 중계



가야산 중봉 마애약사여래불.

법보종찰 해인사가 가야산 중봉 마애약사여래불 기도법회를 시작한다.

해인사(주지 현응)는 '마애약사여래불 기도법회' 를 개설하고 4월 4일 오후 1시 기도 법회를 가야산 중봉 마애약사여래불전에서 개최했다.

가야산 중봉 마애약사여래불은 예부터 마을 혹은 국가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불공을 올리고 지극히 기도하면 소원을 들어준다는 전설이 있었다. 그동안 해인사는 기존 등산로를 폐쇄하고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해 왔으며 해인총림 대중의 예배공간으로만 제한적으로 운영했다.

해인사는 "가야산 중봉 마애약사여래불의 개방과 기도 법회 개설을 원하는 불자들이 많았고 지속적인 요청이 이어졌다"며 "그 의견을 수렴해 임회에서 법회 개설을 의결하고 정기법회를 봉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해인사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정기적으로 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며, 이번 첫 법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총림 사부대중 만 참석토록 했다. 불자들은 인터넷 유튜브 '해인사 TV' 실시간 중계를 통해 함께 기도할 수 있다.

마애약사여래불 기도법회는 특별히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기도 법회는 천수경 독송을 시작해 육법공양이 이어지며 주지 현응 스님의 설단 개설 인사말, 약사불공이 진행된다. 아울러 재난극복과 질병 치유를 발원하며 보배경 기도도 진행할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흉몽을 길몽으로 바꾸며 풍요와 복덕을 얻게하는 귀한 선물
천수경(千手經) 액자

인쇄물이 아니라 한 자 한 자 정성을 들여 모필로 써서 만든 것입니다.
붉은 비단에 금색원형으로 천수경을 적어 조형미와 더불어 품격까지 느껴져
주지스님 방이나 거실, 사무실 벽에 걸어놓기에 안성맞춤입니다.



· 작품크기 : 가로 45cm × 세로 45cm
· 바닥재질 : 비단(한지로 배접)
· 구입대상 : 스님, 신도님

천수경이란

천수경(千手經)은 관세음보살의 6번화신 중 하나인 천수천안관세음보살을 신앙하는 경전이다. 천수다라니는 특히 티벳과, 네팔, 인도, 파키스탄은 물론 중국에 걸쳐 여러가지 이본(異本)들이 있는데 그 체제와 내용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다라니의 내용도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송되고 있는 천수경은 가범달마(伽梵達摩)역의 (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대다라니경)을 모태로 한 것인데 우리말로 풀어쓰면 한량없는 손과 눈을 가지신 관세음보살님의 넓고 크고 걸림없는 대자비심을 간직한 큰 다라니경인데 천수다라니를 정성드려 모시거나 수지 독송하고 지키면 시방세계의 모든 불보살이 와서 증명하여 일체업장이 소멸되고 일체 악업과 중죄와 모든 장애를 여의케하며 일체의 청정한 법과 모든 공덕을 증장시키고 이롭고 안락하게 하며 모든 병과 두려움을 없애주고 일체의 귀신이 범접치 못하게 하고 모든일을 성취케하며 구하는 바를 만족케하고 특히 흉몽을 길몽으로 바꾸며 수명이 장수하고 풍요와 복덕을 얻게한다고 한다. 이와같이 천수다라니에는 온갖 공덕이 들어있어 그 대비신력과 위신력의 영험은 한없이 높고 그 신묘함은 불가사의하다고 하여 신묘장구 대다라니라 한다.

문의 055-291-7263, 010-3845-2446 (금액협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900번길 37-15호 도덕정사

종교상담사 자격 교육
귀장술비법

찾아온 (시간 · 일진)으로 왜 왔는지?
현재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내방자의 사주만 가지고 궁금증을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육임보다 쉽고 더 확실한 점술학...
(명리학을 잘 몰라도 됩니다)

제1기 종교상담학과 개설
☆ 현재 강의중 접수가능
☆ 강의일시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2시~4시
☆ 선착순 30명 접수 ☆ 강사 : 도호스님

3개월완성으로 상담 가능하며. 누구나 쉽게 배우고, 완벽한 과학적 상담이 가능합니다

수강특전 해동불교대학원 종교상담과 수료증 수여 (총장 명의)

해동불교대학원 서울 종로구 종로17번길45
문의안내 02)741-0495~6

현불 논단

어긋난 욕망과 'n번방 사건'

선업 스님
불교상담개발원장



집단 性착취 영상거래 사건
피해자들 '노예'로 지칭하며
윤리 · 상식 벗어난 촬영 강요

피해 여성 상당수가 미성년
수위 높은 영상에 돈 지불

공동체 파괴하는 악한들에
부처님 "키질해 날려버려라"
法 사회화 운동 필요 높아

'집단 성(性)착취 영상거래 사건.' 최근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감각적 욕망에 사로잡힌 '성적 욕망의 노예' 들이 일으킨 '텔레그램 n번방 · 박사방 사건' 에 대한 명칭이다. 이 사건은 메신저 텔레그램의 n번방과 박사방에서 일어난 성착취 사건을 말하는데, 피해자들을 '노예' 라고 부르며 상식을 벗어난 촬영을 강요한 반인륜적인 사건이다.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배경을 보면, 가해자 일당들이 관공서 전산망을 통해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협박을 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와 성 착취물을 얻게 되는 방식이 디지털 범죄 그 자체이다.

먼저 트위터 해킹 코드를 피해자에게 보내 해킹하고 이어서 해킹한 트위터 계정을 통해 전화번호, 이메일, 지역 등을 확보한 후, 경찰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신상정보로 협박하고,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내용의 사진 및 영상 촬영을 강요했다. 정리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킹으로 인한 성착취를 당한 것이다.

여기에 보태어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해 여성 가운데 다수가 미성년자라는 사실과 엽기적이고 노출 수위가 높아질수록 등급이 올라가고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구조에 가입자 대부분이 동의했다는 것이다.

만약 부처님이 이 사건에 대한 보도를 접하셨다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아마도 "세상이 불타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연소경〉(S35.28)에서 부처님은 한 산의 정상에서 "눈이 불타고 있다. 귀가 불타고 있다. 코가 불타고 있다. 혀가 불타고 있다. 몸이 불타고 있다. 마음이 불타고 있다. 탐욕과 증오와 무지의 불로 불타고 있다. 그리고 슬픔과 한탄과 고통과 비탄과 절망으로 불타고 있다"라고 하며 대중들에게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륜성왕 사자후경〉(D26)에서 "도도한 인간의 삶의 흐름에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법(dhamma)이다. 법을 따를 때 인간은 증장하고 법을 거스를 때 인간은 타락한다"고 하면서 그 법이란 삿된 음행 등을 금하고 열 가지 유익한 업의 길(十善業道)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건이 커지자 경찰청장과 여성가족부 장관이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와 "디지털 성범죄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마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하면서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 "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 을 수립해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처님도 이런 경우에는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숫타니파타〉(280, 281)에서 부처님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악을 원하고 악한 의도를 갖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대들은 모두 화합해서 그러한 사람을 물리치고, 쌀겨처럼 그를 키질하여 쓰레기처럼 날려 버려라" 라고 단언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 그치라는 것은 아니다. 대중들이 부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도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성적 욕망에 대한 제어법으로 제시한 "나이 많은 여인들은 어머니처럼, 누이 또래의 여인은 누이처럼, 어린 여인은 딸처럼 마음을 일으키라"는 말씀을 어떻게 일반화시킬 것인지 실천방안을 모색하라는 것이다.

결국, 법사를 찾게 하고, 가까이 앉게 하고, 질문하게 하고, 귀를 기울여 가르침을 듣게 하고, 가르침을 기억하게 하고, 기억한 가르침의 의미를 탐구하게 하는 법의 사회화 운동이야말로 욕망에 사로잡혀 인생을 저당 잡힌 이들을 구할 유일한 대안이 아닌가 싶다.



지인 스님의
병상포교일기

'행복 백신'으로 코로나19 극복

"일어나지 않은 선한 마음을 일으키고, 일어난 선한 마음은 증장하는 이가 진정한 수행자"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이러한 선함이 일어나고 선심이 증장되도록 실천할 수 있는 시기가 코로나바이러스 19로 위기에 처한 요즘이 아닐까 한다.

내가 현재 지도법사로 있는 병원의 공공의료팀 과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스님 마스크를 구할 수 없을까요? 병원에 의료진들이나 환자들이 사용할 마스크가 부족합니다." 전화기를 통해 전해진 그의 간절함이 나의 가슴에도 잔잔한 물이랑을 일게 했다.

일반인들도 마스크를 사느라 약국 앞에 몇 시간씩 줄을 서야하는 어려운 상황에다 불안까지 가중되는 시점인데, 가장 최전선인 병원에까지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말은 심각한 현실감을 그대로 전달해 주었다. "스님, 일반인들이 마스크를 기부하는 캠페인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정말 필요한 곳에 기부할 것 같거든요." 라고 덧붙이는 그의 말은 그대로 절박함과 감동으로 나의 마음에 전달돼 왔다.

절 앞마당서 나무 전지작업을 하며 답답함을 달래고 있을 때, 마침 신도 거사님이 사찰에 잠시 방문



그림 · 최주현

했고 자연스레 이런 사정을 얘기하게 되었다. 거사님은 사업체를 운영중인데 직원들에게는 천마스크를 제공했기에 마침 비상용으로 준비한 200장의 일회용 마스크가 있다면서 흔쾌히 200장의 마스크를 당장 보시했다. 정말 뜻밖이었고 그 감사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런 소식을 전해들은 신도들이 마스크를 갖고 사찰로 한 두 명씩 모여들었다. "스님, 작지만 동참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들은 한결같은 말을 하였다. 그리고 1주일 만에 무려 1,328장의 마스크가 모아졌다. 정말 기적과 같았다. 한 사람의 선한 첫마음이 원동력이 되어 계속 증장되는 이 현실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위기 상황서 펼쳐지는 또 하나의 행복바이러스, 치유의 백신임을 목격하게 되는 환희의 순간인 것이다.

봉사자들과 함께 공공의료팀에 기부받은 마스크를 전달했다. 마스크 상자를 받은 병원관계자들의 눈빛이 촉촉해짐을 느꼈다. 서로의 진실함이 통한 것이리라.

병원은 현재 의사나 간호사를 비롯한 직원들이 직접 전선에 뛰어들어 출입구 문을 지키는 일서부터 자질구레한 일까지 직접 해야하는 상황이라 휴일도 반납하고 일에 매진하고 있다. 정말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가슴깊이 느껴졌다.

그리고 함께한 봉사자들 또한 신심을 일으키는 시간이었다. "오늘 하루 마음이 따뜻했습니다"라고 얼굴 가득 미소를 머금고 전하는 봉사자의 한마디에 그동안의 걱정과 시름이 모두 사라지는 듯했다. 코로나바이러스19의 위기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으로 하루빨리 사라지고 평온과 해방감이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길 기원해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도법사 · 일산 기쁨정사 주지〉

社 說

서로 더욱 노심초사하자

코로나19, 그것은 이제 두려운 일상이면서 인류의 제일공안이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 인류는 하루하루 무너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속수무책이라는 것이다. 내가 너를 무너뜨리고 다시 네가 나를 무너뜨리며 하루하루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어처구니없는 공업의 시절. 이 거짓말 같은 시절을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

하 수상한 시절에서 그래도 다시 봄을 본다. 돌아온 꽃들과 훈훈한 바람으로 하루하루가 새롭다. 달라진 아침과 저녁, 노을의 온도, 하늘의 빛깔까지 하나하나가 새롭기 그지없다. 아! 소리가 절로 나오는 좋은 시절이다. 하지만 오늘의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없고, 멀찍이 걸어야 하고, 손을 내밀 수도 잡아줄 수도 없다. 우리는 결코 좋은 시절일 수 없다. 거짓말 같은 주검들, 거짓말 같은 죽음 옆에서 거짓말처럼 하루를 살아야 한다. 오늘도 우리는 거짓말 같은 하루를 산다. 좀처럼 내일은 보이지 않는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 오늘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다.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고 했다. 어차피 닥친 어려움이라면 '곤란함' 으로 함께 공부하는 것이다. 함께 있어도 함께할 수 없는 오늘. 우리는 더욱 더 우리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가 되지 못하고 너와 나에만 머문다면 우리는 이 공업의 시절을 여법하게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없는 대신 서로의 마음을 좀 더 들여다보고, 손을 잡을 수 없는 대신 서로의 눈에서 위로와 안부를 묻는 것이다. 멀찍이 걸어야 하는 만큼 서로에게 더욱 노심초사하는 것이다. 한 말씀 가슴에 새기며 이 봄을 함께 지나가자.

'사경장' 무형문화재 지정 기대

'사경(寫經)' 은 불교 경전을 필사해 널리 전하기 위해 시작됐다. 그 기원도 오래돼 우리나라 사경의 역사는 불교가 전래된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8세기 이후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사경은 공덕을 쌓는 수행이 됐다. 특히 불교가 국교로 공인된 고려시대에는 국가 차원에서 사경 전문 기관을 운영하며 사경은 전성기를 맞이했다.

'감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보현행원품(국보 제235호)' 등 금자(金字) · 은자(銀字) 형식의 사경이 많이 제작됐고, 충렬왕 대에 중국에 수백 명의 사경승(寫經僧)을 파견하기도 했다. 조선시대 들어서며 사경 문화는 쇠퇴하게 됐다.

단절됐던 고려 사경을 복원한 사람이 김경호 한국전통사경연구원장이다. 그는 40여 년 동안 사경의 재료, 형식, 내용을 연구하고 이를 기술로 승화시켰다.

사경 제작은 쉬운 일이 아니다. 10여 가지의 복잡한 공정이 필요하다. 서예 · 한문 · 불교 교리 · 회화 등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기술도 필수다. 사경이 수행과 예술이 접목된 종합예술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화재청이 4월 1일 불경을 쓰는 기술을 가진 장인인 '사경장(寫經匠)' 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하고, 김경호 원장을 보유자로 인정 예고했다. 이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700년 간 단절됐던 사경을 복원 · 전승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한 달여 예고기간을 거친 후 심의를 통과하면 '사경장' 은 정식으로 국가무형문화재가 된다. '사경장' 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이 이뤄지길 기원하며, 이를 통해 한국 사경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전국 사찰 불단 정밀조사된다

불교문화재硏 · 문화재청, 5년간 조사 진행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단(佛壇)은 사찰 전각에서 불상을 올려두고 예불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된 일종의 받침대로 수미단(須彌壇)으로 불리운다. 아기자기하고 다양한 문양으로 전각에 들어서자마자 먼저 눈길이 가는 사찰 목공예의 진수지만, 그동안은 전각의 구조물 중 하나로 여겨왔다. 그러다 보니 전각과 불상, 불화에 비해 불단은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다. 이 같은 불단의 문화재적 가치를 조사하기 위한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재)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와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3차 사업 대상으로 '불단'을 선정하고 올해부터 5년간 전국 사찰의 불단들에 대한 정밀 조사에 착수한다"고 3월 31일 밝혔다.

불단은 건물 내부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자, 불상을 봉안(奉安)하고 의례에 필요한 다양한 공양기물(供養器物)을 차리기 위해 마련된 구조물이다.

불단은 불상의 봉안과 예배 방식의 변화에 따라 제작 기술도 같이 발전해 왔으며, 당대의 우수한 장인(匠人)들이 시대상을 반영한 다양한 문양과 도상을 정교하게 조각하기 때문에 불교사 · 미술사 분야의 연구 자료로서도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더불어 목패(木牌), 소통(疎筒), 촛대와 같은 다양한 의식구들과 어우러져 우리 불교문화의 전통과 독창성을 보여주고 있어 보존할 가치가 크다.

하지만, 이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단은 건물의 부속물로 인식돼 불상, 불화 등과 같은 불교문화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다. 주재료가 목재이기 때문에 수리가 쉽지 않고 변형되기 쉬우며 화재, 충해, 습기 등 외부 환경에도 취약해 보존 · 복원을 위한 원형자료 구축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있었다.

이에 (재)불교문화재연구소와 문화재청은 그간 협력 · 진행해 온 '불교문화재 일제조사'의 3차 사업 대상으로 '불단'을 선정하고, 올해부터 5개년의 계획으로 정밀 조사를 추진한다.

사업 첫 해인 올해에는 전라도 지역 16개 사찰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는 정밀 실측과 2차원(2D) 디지털 촬영, 3차원 입체(3D) 스캐닝과 도면 작업 등을 통한 원형 디지털 기록화 작업을 하게 되며, 손상현황지도 · 수종(樹種)성분 분석 등 보존과학 조사와 안전도 점검 조사 등 과학 조사도 병행된다. 해당 불단의 역사 · 미술사 의미를 연구하는 인문학 조사도 종합적으로 시행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추후 보존할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불단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불단은 영천 은해사 백흥암 수미단(보물 제486호), 김천 직지사 대웅전 수미단(보물 제1859호) 2건뿐이다.



보물 제486호 은해사 백흥암 수미단.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불단 2점 중 하나다. (재)불교문화재연구소와 문화재청은 5년간 전국 사찰 불단들을 정밀조사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일환
올해 전라도 16개 사찰 대상
3D스캐닝 등 디지털 기록화
미술사적 의미 찾는 연구도
추후 문화재 지정 추진 계획

이번 조사에 대해 문화재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전국 사찰 불단의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불단에 조각된 다양한 문양과 도상(圖像)이 전통문화 콘텐츠로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재)불교문화재연구소장 제정 스님은 "사찰 전각과 불화, 불상들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돼 연구와 보존 등이 이뤄져왔다. 하지만, 불단은 그간 등한시 돼 관리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면서 "사찰 100여 곳의 불단을 정밀조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사찰 불단의 불교미술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룡사 동회랑 외곽 고승 수행공간"

경주문화재硏 보고서 발간
6 · 8차 발굴조사 결과 수록
35년 만에 두 번째 보고서

담장 구획된 폐쇄적인 구성
공공시설보단 '수행처' 추정

경주 황룡사지 동회랑 동편지구 외곽지역이 당대 승려들의 수행 공간이었을 것이라는 발굴 ·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이종훈)는 경주 황룡사지(사적 제6호) 회랑 외곽 발굴조사 내용을 담은 〈황룡사 발굴조사보고서Ⅱ-동회랑 동편지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경주 황룡사지 발굴조사는 1976년부터 1983년까지 모두 8차에 걸쳐 조사됐으며 첫 보고서는 1984년 발간됐다. 당시에는 금당과 목탑, 강당, 종루, 경루 등 관련 유구와 유물을 소개했다.

35년 만에 발간된 두 번째 보고서는 6차(1981년)와 8차(1983년) 조사에서 본격적인 발굴이 이뤄졌던 동회랑 동편지구의 조사내용과 출토유물을 수록했다.

이번 보고서의 조사구역은 동회랑 동편에 남북으로 길게 설치된 담장으로 구획된 공간으로, 면적은 약 4,300㎡이다. 이곳에서는 황룡사 전체사역의 외곽경계로 추정되는 남북담장이 확인됐고, 이 밖에도 크고 작은 담장으로 구획된 7개의 독립된 공간도 드러났다.

또한, 이들 각각의 독립된 공간 내부에서는 1~3개소 정도의 건물지가 확인됐으며, 주변에서 기와 · 토기 등의 유물도 다량 발굴됐다. 이번 보고서에는 485점의 유물을 선별 · 수록됐다.

동회랑 동편지구 구조와 성격에 대한 보고서의 연구도 눈길을 끈다. 보고서는 중국 당대 사찰에서 보이는 다원식(多院式) 가람구조와 황룡사지 가람구조를 비교 · 분석하고 동회랑 외곽이 공공시설보다는 당시 승려들의 독거 수행공간이나 의례 공간으로 추정했다.

이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신라 황룡사는 회랑 외곽과 강당 북편에는 다수의 크고 작은 건물이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동회랑 동편지구는 담장으로 구획되는 정형의 공간 내부에 건물이 배치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구조는 중국의 '다원식 가람'과 매우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서에서는 동회랑 동편지구가 담장으로 구획돼 매우 폐쇄적인 공간으로 보인다. 이는 개방적인 공공 시설보다는 고승들이 수행을 위해 독거하는 공간이거나 중국 당대 사원에서 볼 수 있는 각종 의례 공간 등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국내 최초 불교문헌 전문 영문저널 창간

동국대 불교학술원 〈EABL〉 첫 호 발간

동국대 불교학술원 한문불전번역학과(학과장 김종욱)는 최근 〈East Asian Buddhist Literature〉(이하 EABL) Vol.1을 창간했다. 〈EABL〉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영문으로 발행되는 동아시아 불교 문헌 전문학술지다. 동국대 김종욱 교수와 일본 국제불교대학원대학교 오치아이 토시노리 교수가 공동 편집장을 맡았다.

〈EABL〉은 한국불교문헌을 포함한 동아시아 불교의 사본 및 간본 등을 새롭게 발견하고 비판적으로 해석하며 이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원문을 교감하고 영문으로 해제하여 공개한다.

국내 유일의 영문 불교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Thought & Culture〉와 자매지 성격을 띠고 있는 EABL의 발간은 한국불교 연구의 국제화를 향한 불교학술원의 행보가 가속화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창간호에 실린 네 편의 교정본은 돈황 사본에서 중국 소재 사본, 한국 소재 판본, 일본 사본에 이르는 문헌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문헌학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창간호에는 〈유가사지론 1권〉, 〈금사론(金沙論)〉, 〈대방광불화엄경담현결택기 1, 2권〉 그리고 〈화엄종입교의〉가 실렸다. 노덕현 기자



백제 最古 환조 석불 '연동리 좌상' 대좌 정비

문화재청, 익산시 불단 정비
앞 · 옆면 강화유리 설치 예정

백제 불상 중 가장 오래된 환조 석불인 '익산 연동리 석조여래좌상(보물 제45호)' 불단 정비가 이뤄진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과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현존하는 백제 불상 중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석불인 익산 연동리 석조여래좌상의 대좌를 온전히 볼 수 있도록 불단을 정비하고 있다"고 3월 30일 밝혔다.

이 불상은 옷자락이 흘러내려 대좌를 덮고 있는 상현좌(裳懸座) 형식으로 매우 귀한 자료이나, 그동안은 불단이 대좌를 가리고 있어서 그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없는 상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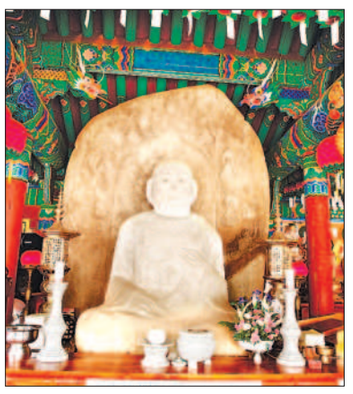
익산시의 핵심유적으로 손꼽히는 연동리 석조여래좌상은 처음 발견되었을 때부터 사라지고 없던 불두(佛頭)만 새로 만들었을 뿐, 불신(佛身) · 광배(光背) · 대좌(臺座)는 잘 남아있어 백제미술의 백미로 인정 받아왔다.

문화재청과 익산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대좌를 가리고 있던 기존의 목재 불단 대신 앞면과 옆면에 강화유리를 설치하고 앞면에는 공양구를 올려놓을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예불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시민들이 불상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비는 백제미술 연구와 지역 문화유산 육성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산 연동리 석조여래좌상 불단 정비작업은 4월 안으로 마무리해 공개할 계획이며, 불상에 대한 실측조사는 8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있는 공주시와 부여군, 익산시와 함께 올해 총 644억원(국비 4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백제역사유적지구 내 핵심유적들에 대한 연구 ·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문화재청과 익산시는 '익산 연동리 석조여래좌상(보물 제45호)' 불단 정비를 진행한다.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등간격 : 규격참조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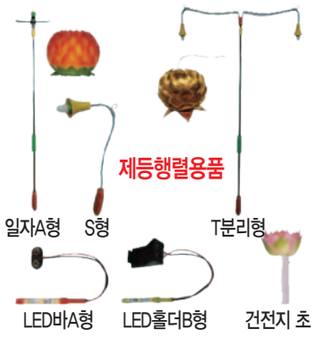
법당 전선시공 전문
승하강 장치시공(신형)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제등행렬용품



일자A형 S형 T분리형 LED바A형 LED홀더B형 건전지 초

전선간격
22㎝, 25㎝, 28㎝, 30㎝, 40㎝, 50㎝,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 정품)



법당용 12E 외곽용 26E ISO9001 ISO1400 연등승하강 장치기술(신형)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 ·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日 호류지 '백제관음상' 도쿄 전시 무산

도쿄국립박물관, 코로나19 이유로 무기한 연기

박영빈 객원기자

일본 내 코로나 19 확산세가 불교계의 각종 행사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이 문화재보호법 제정 70주년을 맞아 야심차게 준비했던 춘계특별전도 무기한 연기됐다. 특히 해당 특별전에서는 호류지 금당 벽화 원본과 백제관음상 등 그동안 만날 수 없었던 성보들이 대거 전시될 예정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적지 않다.

일본의 '야후 재팬 뉴스'는 3월28일 이와 관련 "도쿄박물관은 춘계특별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음에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보도했다. 이는 코로나 19로 각국이 이동과 집회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여러 공공기관 역시 무기한 휴관조치에 들어간데 따른 것이다.

도쿄국립박물관 춘계특별전은 1950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 제정 7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로, '호류지 금당벽화와 백제관음'을 주제로 마련됐다. 일본 문화재보호법이 1949년 호류지(法隆寺) 금당 해체수리 중 일어난 화재로 금당과 금당벽화가 전소된 사태를 계기로 제정됐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담겼다. 당시 벽화는 화재진압에 사용된 고압소방호스의 물로 2차 훼손을 입었고, 별도

문화재보호법 제정 70주년 맞아
호류지 성보 주제 특별전 기획전
전시준비 완료했으나 공개 난항
정부요청으로 임시휴관 지속예정

의 장소로 이운됐던 불상등과 벽화의 일부만이 소실을 면했다. 호류지 사건은 문화재 보호에 대한 여론이 고조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 이듬해 문화재보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각별한 의미가 있는 만큼 도쿄국립박물관과 호류지 측은 이번 전시에서 그동안 비공개로 보존했던 소실된 원래 벽화의 일부를 공개키로 했으며, 소실 전 모사됐던 모사도 모두 한자리에 공개해 원본과 대조하여 볼 수 있는 전시로 기획했다. 또 박물관 측은 지난해 가을, 특별전 기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호류지가 자랑하는 성보 백제관음상을 함께 전시할 것"이라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백제관음상은 23년전 특별전 이후 호류지를 떠나 대중에 공개된 바 없다.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이 '호류지 금당벽화와 백제관음'을 주제로 마련한 특별전이 코로나19의 여파로 무산됐다. 사진은 언론에 공개된 백제관음상. 사진출처=야후재팬 뉴스

이와 관련 도쿄국립박물관 측은 "3월13일부터 특별전이 시작 될 예정이었으며, 이미 백제관음상은 물론 모든 유물과 전시자료를 특별전시관에 전시해둔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나 특별전은 일본정부의 요청으로 2월27일부터 3월16일까지 임시휴관이 결정되면서 연기됐으며, 휴관종료 후 정부가 연장휴관을 재차 요청하면서 무기한 연기됐다. 박물관 측은 "정부의 연장 요청에 정해진 기한이 없어 언제 끝날지 알 수 가 없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

언론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공개된 특별전에 참가한 '일간 스파'의 츠바키 기자는 "아무도 없는 전시실 한 가운데 덩그러니 백제관음상이 서있었다"며 "어둠 속에서도 당당한 카리스마를 보이는 불교미술의 걸작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말로 언제 재개될지 모를 특별전에 대해 아쉬운 마음을 전했다.

日 시코쿠 순례자숙소 폐쇄사례 급증

키쿠야, 18년만에 운영 중단
노령화 · 시설 노후 주 원인



키쿠야 젠콘야도 앞에서 순례자와 이야기하는 카네소씨 부부. 사진출처=토쿠시마 신문

일본에 유서 깊은 불교 순례길인 '시코쿠 88개소 사찰순례길', 통칭 '오헨로 순례길'의 순례자 숙소가 급감하고 있다. 3월20일 시코쿠 지역 언론 '도쿠시마 신문'은 18년 만에 문을 닫은 순례자 숙소 '키쿠야 젠콘야도(善根宿)'를 중심으로 이같은 현상에 대해 보도했다.

젠콘야도는 1200년 역사의 오헨로 순례길을 찾는 순례자를 위해 지역 신자들이 운영하는 숙소를 일컫는다. 순례자 가운데 불보살의 화신이 있다고 믿는 시코쿠의 민간신앙에 따라 순례자들에게 잠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선근을 쌓는 일로 여겨져 온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최근 도쿠시마(德島)현 아난(阿南)시에 소재한 '키쿠야 젠콘야도'는 18년간의 역사를 뒤로 하고 문을 닫는다고 공지했다. 키쿠야 젠콘야도를 운영해 온 카네소씨 부부가 운영 중단을 결정한 이유는 노령과 거주지 이전이다.

주택설비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카네소씨 부부는 "회사 근처에 88개소 사찰 중 한 곳인 뵤도지(平等寺. 22번)가 있다. 어느 날 잠자리를 구하지 못해 길가를 헤매던 순례자를 재워준 것이 젠콘야도를 시작한 계기"라며 "지난 18년간 이곳을 이용한 순례자들은 국내외를 포함해 1만 수천 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키쿠야 젠콘야도는 약 20평방미터의 단층 조립식 건물. 젠콘야도를 시작한 이래 지인들에게 이부자리나 필요용품을 기부 받고, 화장실과 세면시설을 갖추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특히 도보순례자들에게 인기를 끌어온 키쿠야 젠콘야도엔 감사의 메시지가 담긴 방명록이 가득 꽂혀있다.

아내인 카네소 준코(79)씨는 "남은 여생을 가족들과 보내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결정했다"며 "더 이상 이곳을 운영할 수 없지만, 젠콘야도를 운영하는 동안 행복했고 많은 사람과의 만남으로 삶이 풍성했던 것에 감사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코쿠의 젠콘야도들은 지역주민의 신심 혹은 우연한 계기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폐쇄 사례가 크게 늘었다. 가장 큰 이유는 운영자 노령화와 시설 노후화로 꼽힌다. 실제 지난해 도쿠시마 현 내의 유명 젠콘야도 중 한 곳은 시설 노후화를 이유로 철거됐으며, 현 내의 다른 젠콘야도는 운영자의 사망에 따라 자동 폐쇄됐다.

사용자와 주민간의 문제로 폐쇄되는 곳도 적지 않다. 시코쿠에서 숙박업에 종사하는 한 남성은 "많은 젠콘야도들은 지역주민들이 신심으로 세운 시설이다. 그러나 시코쿠 순례길을 단순 도보여행으로 생각하는 관광객이 늘면서, 순례자가 아닌 관광객의 입장으로 젠콘야도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방글라데시서 9~11세기 추정 사찰터 발견

1월22일부터 발굴 이어져
고고학자들 "독특한 형태"

방글라데시 쿨나(Khulna)주와 바리살(Barisal)주 당국 고고학부가 1200년 된 불교 사찰 터를 발견, 발굴 작업에 착수했다고 '부디스트도어(Buddhist door)' 등 외신 매체가 지난달 27일 보도했다.

지역 당국 고고학부는 쿨나주 제소르(Jessore)구 케쉬브푸르(Kheshbpur) 지역에서 9~11세기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2개 사찰 터를 발견해 지난 1월 22일 발굴 작업에 착수했다.

발굴팀의 총 책임자인 아프로자 칸 미타(Afroza Khan Mita)는 "남서부 방글라데시에서 이런 종류의 구조물이 발견된 것은 처음"이라며 "심지어 서벵골(Bengal, 원래 인도 북동부의 한 주(州)였으나, 현재 일부는 방글라데시 영토에 속함) 남부 지역에서도 이 같은 발견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유명한 인도 고고학자 아룬 낙(Arun Nag)도 "이번 발견은 방글라데시 고고학 역사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그것은 '바랏 바야나' (케쉬브루프에 있는 고고학 유적지) 발견 이후 벵갈 남부 지역에서 발견된 두 번째 사원"이라고 '다카트리뷴' 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방글라데시에서 발견된 1200년 전 사찰터. 사진출처=다카트리뷴

고고학자 낙은 또 "이 고대 건축물은 방글라데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던 독특한 특징이 있다"며 "모든 건축물이 발굴되면 방글라데시의 고고학사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고고학자들은 "사찰터의 폐허에서 발견된 특징 중 일부가 방글라데시에 있는 다른 불교 유적지와는 매우 다른 형식을 나타낸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남아시아 불교 유적 양식과 비슷한지 등을 알아보는 심층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고고학부의 보조 연구원인 우르밀라 하스낫(Urmila Hasnat)은 "이 터에서 우리는 무늬가 새겨진 테라코타 벽돌, 점토 항아리 파편 등을 발견했다"며 "이것들에는 연꽃 무늬나 기하학적 모양이 새겨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석회와 모래로 만들어진 스투코(stucco), 항아리 등도 발견됐다"며 "이는 오직 7~11세기 불교 사원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도 덧붙였다.

지역 일간지 '프로톰 알로' (the Prothom Alo)에 따르면, 당초 이 사찰 터는 망고나무 숲이었다. 1988년 폭풍이 몰아쳐 망고나무들이 무너지자 당시 토지 소유자가 바나나 나무를 심으려고 땅을 파던 중 벽돌 장벽이 발견된 바 있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 이 소식은 지역 거주민 사이에서만 회자됐고, 외부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로부터 30년 후인 지난해 11월, 현 토지 소유자인 기지아 술타나와 그의 남편 모스타파 모랄은 다시 망고나무를 심기 위해 더 깊게 땅을 파기 시작했다. 이때 거대한 빨간 벽돌 구조물이 드러났고, 지역 당국 고고학부에 신고 돼 마침내 올해 1월 발굴 작업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발굴 작업은 1~3월 내내 진행되다 현재는 우기로 인해 중단된 상황이다. 지역 당국은 "우기가 끝나자마자 다시 작업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현 객원기자

달라이라마 "코로나 19 전세계 힘 모아야"

코로나 19 사태 특별 메시지 전해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인 달라이라마가 코로나 19 사태에 대한 특별 메시지를 발표했다.

달라이라마 사무국은 3월 30일 티벳어, 영어, 중국어, 힌디어의 4개국어로 된 공식 메시지를 공개했다. 사무국은 "전세계에서 달라이라마 성하께 거듭해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요청한 것에 응해 이번 메시지가 발표됐다"고 전했다.

달라이라마는 메시지에서 "인류는 서로 의존하는 존재이기에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하며, "개인과 사회 모두가 예방에 힘쓰고, 국가들은 협력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특별히 코로나 19의 대처를 위해 최전선에서 움직이는 의료관계자들에게는 "실로 자비행의 실천"이라고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또한 이번 사태로 더욱 고통 받을 취약계층을 간과하지 말자고도 말했다.

달라이라마는 코로나 19가 유행하기 시작하던 2월 초, "전염병의 조기 종식을 위해 따라보살 진언을 염송하자"며 기도를 권장한 바 있다. 한편 달라이라마가 주석하는 인도 다람살라는 전면적인 외출금지령과 함께 거주 외국인들의 귀국이 이어지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상담(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제6차크라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라이브 방송
페이스북 | 매주 수요일 밤 10-11시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3000칸 넘는 대가람 북녘 '흥왕사'



이상근의
聖寶流轉
⑦ 한반도 역사상 最大 사찰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규모가 컸던 사찰은 어디일까?

물론 땅 넓이로 따지자면 지역을 넘어 팔도 방방곡곡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찰이 여럿 있지만 땅 넓이로만 놓고 '최대 규모'라고 하기에는 좀 머쓱하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 대답하면 우리 역사상 가장 규모가 컸던 사찰은 개경 근처에 있던 흥왕사(興王寺)다. 건물의 수와 칸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고려사절요〉 문종 21년(1067년) 기록에 의하면 "흥왕사가 완성되었으니, 무릇 2,800칸이었으며, 12년에 걸쳐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여기에 숙박 기능을 하는 원(院)이 여럿 딸렸었는데 그 중에 규모가 컸던 흥교원은 160칸이었다고 한다. 절과 원을 합치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대략 3,000칸 규모가 넘었다는 얘기다.

칸수로는 잘 짐작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넓이까지 부연하자면 전제 32만㎡(약 10만평)다. 서울 경복궁 정도의 수준이다.

건물 숫자나 칸수를 비교하자면 흥왕사에 버금갔던 절은 불국사 정도가 유일하다. 물론 지금의 불국사를 상상하면 안 된다. 1740년 동은 스님이 엮은 〈불국사고금창기〉에 따르면 '한때' 불국사는 80종 건물에 2,000칸의 건물이 있었다고 한다. 지금 불국사의 약 8배 규모다. 그래도 흥왕사 규모에 비하면 2/3에 불과하다.

縣 하나를 통째로 옮겨 건립

흥왕사는 현재의 북한 개풍역 언저리에 자리잡고 있었다. 구글 어스에 들어가 인공위성으로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개풍역 주변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드넓은 평야와 그 길 끝에서 만나는 야트막한 산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사찰이나 산성터로 짐작되는 곳도 보이는데 확실하지는 않다. 여하튼 평지가람이었다는 말이다.

흥왕사는 고려 문종 10년(1056)년 처음 지을 땅을 정하고 문종 21년(1067)에 완공했다. 12년에 걸친 대역사였다. 절을 짓기 위해 현(縣) 하나를 통째로 옮겨버렸을 정도다. 이런 대규모 토목 공사에 반대가 없었을 리가 없다. 당시에도 시끄러웠고, 후세에도 그랬다. 고려 후기 문신 이제현은 문종의 치세를 극찬했지만 딱 한 가지 잘못이 있으니 흥왕사를 창건한 것이라고 했다. "그 절의 높고 훌륭한 집은 궁궐보다 사치하고, 높이 쌓은 성은 나라의 수도와 비슷하여 황금으로 탑을 만들었으며 모든 시설들이 이와 비슷하였다. 이는 거의 양 무제와 비교될 만하다. 문종은 후대에 자신의 덕을 찬미하고자 하는 자가 이것에서 탄식할 줄을 알지 못하였다"고 적었다.

어떤 궁궐보다 크고 화려해

'궁궐보다 사치했다'는 흥왕사의 모습은 어땠을까?

흥왕사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는 유일한 기록은 1948년 발굴 기록이다. 당시 발굴에 참가했던 동국대 황수영 박사가 〈불교와 미술〉에 남긴 기록을 보면 입구를 중심으로 좌우에 8각 목탑 터가 있었고 일직선상에 석등, 금당, 그리고 강당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곳은 회랑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회랑 바깥쪽으로 동원과 서원이 있었다. 그 동원과 서원 바깥으로도 건물터가 이어진다. 회랑을 치고 원을 구분한 모습은 불국사와 흡사하다.

물론 이 발굴조사에서 나온 기록 등은 창건 당시 사원의 규모와 배치는 아닐 것이다. 흥왕사는 1067년 낙성됐지만 이후에도 불사는 계속됐다. 1070년에는 사찰 주변으로 아예 성을 쌓았다. 담이 아니라 성을 쌓은 이유는 이곳이 행궁의 기능을 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실제 홍건적의 침입으로 안동까지 몽진했던 공민왕은 개경으로 돌아왔지만 궁에 머물 수가 없자 흥왕사를 행궁으로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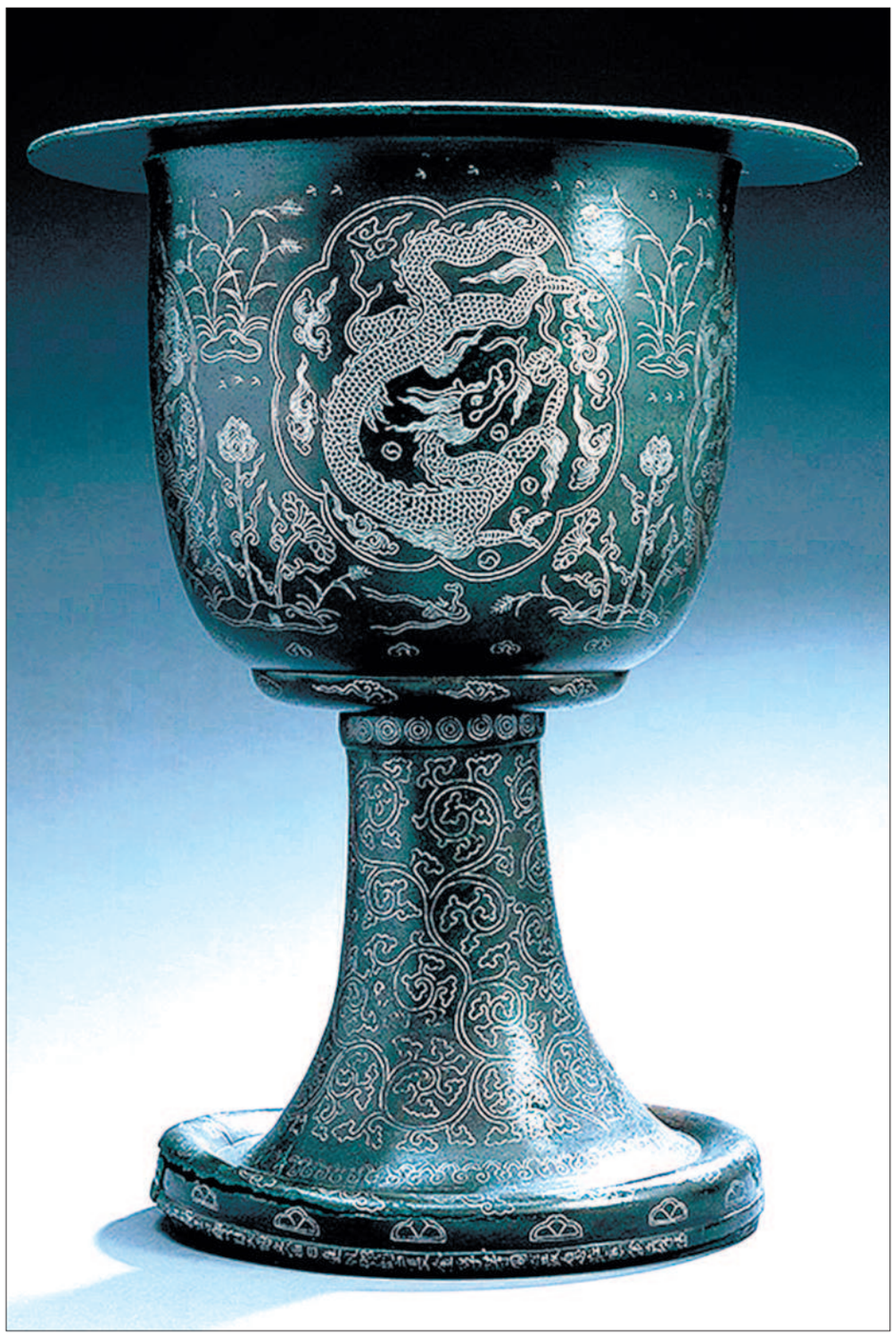
고려 문종代 창건된 흥왕사
10만평 규모… 경복궁 버금
"궁궐보다 사치" 기록 남아
사찰 주위 성벽, 행궁 역할
최이 희사 금탑 流轉 '눈길'

1078년에는 금탑을 올렸고 1080년에는 이 금탑을 보호하는 석탑을 쌓았다. 〈고려사〉 기록에 따르면 이 금탑은 은으로 내부를 만들고 금으로 표면을 입혔다고 하는데 은이 427근, 금이 144근 사용되었다. 144근이면 86kg이 넘는다. 2000년대에 법주사 청동대불에 도금을 한 적이 있는데 이때 사용된 금이 80kg이었으니 대충 흥왕사 금탑의 규모를 짐작해 볼 수 있다. 황수영 박사는 '서쪽 가람지에서 이 석탑의 흔적을 찾았다' 고 쓰고 있다.

흥왕사 금탑은 이밖에도 하나가 더 있었다. 무인 집권기 최충헌의 아들 최이가 희사한 13층 금탑이다. 충렬왕 때 원성공주가 흥왕사 금탑을 궁궐로 옮겨왔다는 기록이 있는데 아마 최우가 희사한 금탑이었을 것이다. 또 이동이 가능했던 걸로 봐서는 야외에 세운 대규모 탑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때 사용된 금은 200근이 넘었다고 한다.

웅장하고 화려했던 자씨전과 금탑

거개가 그렇듯이 종교 건축물이나 조각은 순수한 창작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일정한 형식을 따르되 부분적으로 변화를 주는 형식이 많다.



국보 제214호 흥왕사명 청동 은입사 향완. 1229년 개풍군 흥왕사에서 사용할 용도로 제작됐다는 기문이 남아있다. 화려한 향완으로도 흥왕사의 당시 위상을 알 수 있다.

흥왕사의 건물이나 탑 등도 그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금당 앞에 있던 팔각목탑 두 기는 고구려 시대의 목탑이 모델이 되었을 것이다. 고구려 시대 사찰은 목탑이 많았는데 평양 청암리사지(혹은 금강사지)에 있던 7층 팔각 목탑은 그 높이가 60미터 이상으로 추정되고, 정릉사지 팔각목탑의 경우도 그 규모가 청암리사지 목탑과 비슷한 규모였다. 흥왕사에 있던 두 목탑은 고구려 대목탑 규모의 1/3정도로 추정된다. 다만 황수영 박사는 금당터 앞의 목탑은 그 건립 연대가 흥왕사 창건 연대와 비슷한 중국 산서성 응현 불국사의 팔각 5층 목탑이 모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사실 흥왕사 건물이나 내부 장식의 많은 아이디어는 중국에서 온 것이다. 송나라 사신 서긍이 1123년 고려에 사신으로 와 고려의 모습을 기록한 〈고려도경〉에 따르면 '(흥왕사 불전 내부는) 문왕이 사신을 보내 중국의 상국사를 모방해 양쪽 벽에 그림을 그렸다' 고 되어 있다.

역시 상상이긴 하지만 흥왕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유물을 꼽으라면 자씨전과 그리고 최이(최우)가 희사했다는 금탑을 꼽고 싶다.

자씨전은 흥왕사가 낙성된 지 3년 후인 1070년 지어진 건물이다. 자씨전 하면 낯설지만 용화전, 미륵전, 장륙전이라는 이름은 익숙하다. 바로 미륵보살을 모신 전각이다.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아마 금산사 건물이 모델이 되었을 것이다.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금산사에는 현재의 미륵전을 비롯해 3층짜리 건물이 세 개나 있었다.

최충헌의 아들 최이(처음에는 최우로 불리다 나중에 최이로 개명)가 희사한 금탑의 유전(流轉) 역시 남다르다. 앞에서도 밝혔지만 금 200근이 넘게 들어갔다는 이 금탑은 이동이 가능한 크기였던 것 같다. 그 덕에 부침을 겪는다.

충렬왕은 고려 왕 중에서는 최초로 원나라 공주와 결혼한 인물이다. 부인이 바로 원성공주 즉 제국대장공주였다. 제국대장공주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충렬왕이 요양 차 제국대장공주와 함께 어떤 절에 가던 길이었는데 시종하는 사람이 적다는 이유로 충렬왕을 지팡이로 때리고 돌아갔을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흥왕사에 갔던 제국대장공주가 금탑을 보고 욕심이 생겼던 모양이다. 아예 금탑을 내궁으로 들여놓으라고 지시한 것이다. "공주가 (금탑을) 마음대로 쓰고자 하니 왕이 그만 두게 하였지만 듣지 않았다. 이에 (충렬왕)은 내내 울기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 금탑은 결국 흥왕사로 다시 되돌아가게 된다. 갑자기 충렬왕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쓰러져서 사경을 헤매자 제국대장공주는 관리에게 치료법을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금탑을 도로 흥왕사로 돌려보내야 한다"였다. 남편을 구박했지만 과부가 되기 싫었던 제국대장공주는 금탑을 냉큼 흥왕사로 돌려보낸다. 이후에 충렬왕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다고 하는데, '꾀병'이었다는 의심은 나에게만 드는지 모르겠다.

몽골 침입으로 불탄 흥왕사

1231년 10월 몽골군의 1차 침략이 시작됐는데 〈고려사〉에는 12월 25일(양력) 몽골군이 흥왕사를 '공격'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성을 쌓고 행궁 역할도 했으니 군사가 있었을 터이고 결국 몽골군이 이곳을 공략 대상으로 삼은 것이리라.

여하튼 이때 흥왕사는 거의 모든 건물이 전소된다. 금당은 물론 목탑도 불탔을 것이다. 웅장한 자씨전도 함께 사라졌으리라.

전쟁이 끝나자 흥왕사 재건이 시작됐다. 이전의 모습을 어느 정도 찾았다고 하나 위용이 그대로였을지는 모르겠다. 이후에도 절은 그 명맥을 이어가다 조선 초 어느 때 기록에도 없이 사라지고 만다.

다만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 있으니 최이가 희사한 금탑이었다. 이동이 가능한 형태여서 그랬던 모양이다. 하지만 이 역시 고려 멸망 후에는 어떤 기록도 남아 있지 않다. 야사에 따르면 흥왕사의 보물인 금탑을 명나라 사신들이 조선에 올 때마다 탐냈다고 한다. 심지어 명나라 영락제까지도 "금탑을 가져올 수 없을까"라고 묻곤 했단다. 결국 명의 요구가 귀찮았던 태종 이방원은 금탑을 명나라 사신들 손에 들려 보내줬다고 한다. 물론 '야사' 일 뿐이다. 중국의 어떤 기록에도 이 금탑의 행방은 없다. 발굴이 덜 된 북녘땅 어디에라도 고이 모셔져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불광출판사 편집주간〉



본사의 염불전문시스템이 어느?

경지에 올랐고 일반시설과의 수준 차이가 어느정도인지 시설전 반드시! 비교 확인하셔서 평생 수 천번 사용하는 염불시설의 실패를 면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자는 소리의 명인으로 염불소리의 교정 발전 및 전화상담 환영

본품은 본사의 염불전문 개발품으로 시중에 없음!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 지금 이 글은 법적증서!

장점 : (1) 앰프다루기 1초! 간결한 제품은 고장이 없음
(2) 방문시 설악 신흥사 및 토굴까지 2천여 사찰 시설명단 제공에서 확인!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완벽시설, 290만원,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방생용, 각종 마이크 구경)

▣ **마이크소리 구경 조건으로 신청**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투표, 개체서 전체로 나가는 길



변택주의
다시 읽는 法頂 스님
⑦ 4 · 15총선과 불교



법정 스님이 생전에 입던 두루마기. **현대불교 자료사진**

한 사람씩 내놓은 뜻이 이 사회를 이뤄

4 · 15 총선을 앞두고 있다. 이번 총선이 지난 총선들과 두드러지게 달라진 것이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와 '18살로 낮아진 선거 나이' 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에 국회 문턱이 낮아지며 다당제 문이 열려, 정치가 '대결' 에서 '대화' 로 갈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제1야당이 법이 지닌 허점을 파고들어 위성 정당을 만들고 여당도 따라 위성 정당을 만드는 바람에 무늬만 다당제가 되고 말 것이란 소리가 들린다.

개체에서 전체로 나아가려면 도두보며 저마다 뜻을 나눠야

핀란드에서는 지난해 말, 서른네 살 난 여성 산나 마린이 총리가 됐다. 사회민주당원인 마린 총리를 비롯해 부총리 겸 재무장관에 카트리 쿨무니(32) 중앙당 대표, 내무장관에 마리아 오히살로(34) 녹색당 대표, 교육장관에 리 안데르손(32) 좌파연합 대표, 법무장관에 안나 마야 헨리크손(55) 스웨덴인민당 대표가 입각해 다섯 개 정당을 대표하는 여성들이 내각에 들어가 눈길을 끌었다. 이 가운데 네 사람이 30대, 이른바 밀레니얼 세대다.

법정 스님이 나랏일을 얘기하며 자주 나눈 말씀이 칠불쇠법이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 밧지가 날로 나라 살림이 넉넉해지고 힘이 세지는 데 위협을 느낀 마가다 임금 아자타삿투가 신하를 보내 부처님에게 밧지를 쳐들어가 무릎 꿇리고 싶은데 어떻겠냐고 여쭸다. 부처님은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 일곱 가지 보기를 들면서 가장 먼저 "밧지 사람들은 자주 모임을 하고 저마다 지닌 뜻을 거리낌 없이 나누며 어울린다"라고 꼽는다.

늘 '나는 나이고 싶다' 라고 말씀하던 스승은 틈이 날 때마다 석가모니가 두 사람이 있을 까닭이 없다, 제비꽃이 제비꽃다워서 아름답듯이 사람도 저마다 저다워야 한다, 저다움을 지닌 개체들이 어울리며 전체로 나아갈 때 맑고 향기롭다고 말씀했다. 저다움을 잃지 않으며 개체에서 전체로 나아간다는 건, 너를 살릴 때 비로소 내가 살 수 있다는 살림살이 바탕에서 이웃하는 이들이 서로 도두보며 모자라는 구석을 메워가는 것을 일컫는다. 민주주의란 저마다 다른 악기 소리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소리는 내는 오케스트라다.

'연동형비례대표제' 허점을 비집어 세를 불리려는 제1야당과 여당이 놓친 것이 있다. 철학자 존 롤스가 내세우는 '중첩 합의(overlapping consensus)' 와 '최소 수혜자(Maximin) 배려 원칙' 이다. 미국 현대 인권 개념은 남북전쟁에서 흑인과 백인을 가리지 않고 고르게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나선 브라운대학교 교육위원회 판결을 비롯해 민권운동에 이르는 숱한 입씨름에서 '중첩 합의' 를 거치며 오늘에 이르렀다. 뜻을 모아가는 얘기 바람에서 '최소 수혜자 배려 원칙' 이 큰 힘을 떨쳤다. 사회는 가장 힘이 달리는 사람마저 편안하도록 아우를 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간다.

서정주가 읊은 '국화 옆에서' 를 여는 구절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에 나오는 국화꽃은 한 송이가 아니다. 작은 꽃들이 꽃다발을 이루어 한 송이처럼 보일 뿐이다. 꽃송이 하나하나가 저마다 나팔꽃 같이 생겼다. 조그만 꽃들이 어울려 벌과 나비를 불러들이는 힘이 국화과 식물이 지구별에서 오래도록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다.

대승, 큰 탈 것이란 말도 항공모함처럼 커다란 것을 일컫는 말이 아니다. 작은 반딧불이 어울려 큰 빛을 내듯이, 작은 눈들이 어울려 두루 보고, 솜씨가 다른 작은 손들이 어우렁더우렁 서로 모자라는 구석을 메우며 이룬 '우리' 를 가리킨다.

네가 있음은 절대이다 없어도 그만이 아니다

선거 나이를 18살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가 인준한 것은 지난해 12월 27일이다. 같은 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보수 성향 교육단체들은 "교실을 정치화하는 법으로 학생까지 정치판에 끌어들이는 시도"라고 드잡이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청소년이 시민으로 인정받는 첫걸음"이라며 반겼다. 선거법 개정으로 투표권을 갖게 된 한 학생은 "청소년이 주관 없이 교사나 정치인에게 선동당할 것이라는 우려는 폭력이며 권리 침해"라고 맞받으며 "주 52시간제로 지나친 노동을 막은 것처럼 지나친 학습 시간도 규제하는 공약이 나오면 좋겠다. 학교 독서실이나 심화 학습반을 성적에 따라 나누는 것과 같은 차별을 근절할 법안도 필요하다"라고 했다.

민주주의 선거 중요성
불교 '칠불쇠법'서 전해
개체에서 전체로의 힘
대중 지혜 발현 이어져

스승이 계셨다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도예가 김기철 선생 따님 사진작가 김미현이 프랑스 유학을 하겠다고 했을 때 식구들이 몹시 반대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어버이와 힘겨루기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야 바람직하다"란 스승 말씀에 따라 김기철 선생 내외 판정패로 끝난다. 스승은 그때를 이렇게 돌아봤다.

"내 산거에 오면 미현, 민호, 규호 세 자녀와 모처럼 자리를 같이하게 된 기회라 가족회의를 곁들여 재판받을 일(?)을 내놓게 된다. 어머니 조남숙 여사가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차근차근 나열하면 성미 급한 편인 김기철 님은 중요한 대목만 대충 이야기하라고 윽박지른다. 성미가 너그럽지 못한 재판관인 나도 들을 만큼 듣다가 알겠다면서 주관적인 판단을 내린다. 이런 논의 결과 미현이가 빠리에 가서 사진작가로서 서서히 인정을 받게 되었고, 민호는 중국 문학을 열심히 연구하고, 막내 규호도 제 개성을 마음껏 발휘하며 군복무를 하고 있다."

누구에게나 부처님 씨앗이 있다고 여기는 스승은 아이에겐 어른 못지않은 부처님 결이 있을 뿐 아니라, 말갛기까지 하여 세속에 찌든 어버이보다 훨씬 부처님답다고 말씀했다. 아이는 이미 부처님, 오는 세상을 아우를 부처님이기에 아이 일을 놓고 아이와 어버이 뜻이 다를 때면 스승은 어김없이 아이 손을 들어줬다. 아이, 여성, 노동자, 농부, 어부 마음을 그 사람들보다 더 잘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다.

법정 스님 스승인 효봉 스님은 1949년 "높은 것은 높은 대로 두고 낮은 것은 낮은 대로 두며, 긴 것은 긴 대로 짧은 것은 짧은 대로 두어야 참 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다. 1958년 통도사 내원암 낙성식에서는 "사람들은 저마다 제 법당을 지어 걸림 없이 수용하고 있는데, 오늘 수옥 비구니가 법당을 신축했다. 그러면 이 법당은 주인이 있는 법당인가, 주인이 없는 법당인가. 만일 주인이 없는 법당이라면 이 집은 이제부터 썩는 길로 들어갈 것이고, 주인이 있는 법당이라면 날마다 새롭게 빛을 낼 것이다. 그러면 이 법당 주인은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여기서 '이 법당' 을 '이 사회' 로 바꿔도 뜻이 바뀌지 않는다. 이 사회는 주인 바로 이 시대를 함께 빚어가는 우리다.

슬기로움, 순수한 집중서 나와

"슬기로움은 우연히 얻어지는 게 아니야. 순수한 집중으로 제 안에 지닌 빛이 발하는 거지. 네가 있으므로 해서 네 이웃이 환해지고 맑아지며 향기로워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 네 하루하루가 너를 이룬다. 그리고 멀지 않아 한 가정을, 지붕 아래 온도를 이루고, 그 온도는 이웃으로 번져 한 사회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네가 있음은 절대이다. 없어도 그만이 아니란 말이다." 스승이 1971년에 10대에게 남긴 말씀을 간추렸다.

"네가 있음이 절대"라던 스승은 "행여 깨달음을 얻으려고 수행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깨달음은, 굳이 말을 하자면 보름달처럼 드러나고 꽃향기처럼 풍겨오는 것"이라고 하면서 "수행을 하는 까닭은 (갖춰진) 깨달음을 드러내려는 데 있다"라고도 말씀했다. 수행이란 이미 내 안에 있는 맑음을 드러내어 이웃을 나와 다름없이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일컫는다는 말씀이다.

젊은 사회로 바꾸는 새 단초 기대

핀란드 총리 산나 마린은 1985년 11월 수도 헬싱키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을 보육원에서 보낸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와 결혼했으나 이혼한 뒤 동성 결혼을 한다. 그 바람에 엄마가 둘인 가정에서 자란 산나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15살 때부터 빵 만드는 공장에서 일했다. 식구들 가운데 처음으로 대학교에 들어갔으나 돈벌이를 하며 다녀야 했다. 남편과 사이에 딸을 둔 워킹맘이기도 한 산나 마린이 서른네 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총리에 오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청소년에게 반드시 지역사회 청소년 동아리에 들어 정책을 다루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란 말을 청소년기본법 8조에 담을 만큼, 핀란드는 16살이면 선거권을 주며 18살이면 피선거권도 준다. 이처럼 핀란드 청소년은 정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니만큼 나이는 어려도 경력이 풍부한 정치인이 수두룩하다.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25살, 대통령 피선거권은 40살이 되어야 가질 수 있는 우리나라는 정당원 자격도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이"로 꼽는다. 그러나 영국 보수당은 당원이 되는데 나이 제한이 없고, 노동당도 15살부터 들어갈 수 있다. 독일 사회민주당은 14살부터, 프랑스 사회당도 15살부터다. 아이에게도 차별 없이 보장해야 한다며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짚은 것이 '결사할 자유' 와 '참정권' 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정당 가입 나이 제한을 없애고 정당 자율로 운영하도록 한다"라고 내놓았다. 우리 젊은이들이 날마다 새로운 빛을 내어 주인 노릇 제대로 하려면 핀란드 젊은이들처럼 머뭇거림 없이 정치에 뛰어들어 스스로 벼릴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 청소년이 정당원이 될 때 비로소 당내 경선을 하는 대통령 후보들이 청소년을 아우를 정책을 내놓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투표권을 받은 18살 유권자가 53만 남짓하다니 적지 않은 젊은이가 제 뜻을 밝힐 수 있다. 투표는 내 뜻을 드러내 개체에서 전체로 나가는 큰 힘 가운데 하나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놓은 뜻과 몸짓이 모여 이 사회를 이룬다.

〈법정 스님 눈길〉 저자

보련기획 BORYEON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부처님오신날 도량장엄등 설치 • 유지관리

연등 자동승강장치

고정식 연등설치

천불전

인 등

위 패

법당용 연등

공단연등

아크릴한지등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사찰명인쇄 주문접수 중
전선, 전구등 공사자재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현견 스님의
중국 선 문화기행 Ⅱ
⑦ 당말 오대 송초의 선종



그림 · 강병호

중국(한나라 때)에 인도불교가 전해진 지 2천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불교가 중국에 유입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초기에 몇 사람의 주도하에 선수행을 하는 단체가 있었지만, 정식으로 선종이 수립된 시기는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이후 5백여 년이라는 시차가 있다. 따라서 선종의 역사는 보리달마를 기점으로 1500여 년이라는 역사를 지니고 있다. 선종이 지나온 역사적인 발전과 과정을 몇 단계로 나누어 회고해 보고자 한다.

당대에 성립된 선종은 신수 혜능 등의 활약으로 당시 사회의 각계각층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당대 초기까지 대부분 선종은 하층민 출신의 승려들을 중심으로 유행했다.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문인사대부 계층에서도 선법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당대 통치자들도 역시 선종의 선사들에게 예를 다해 우대를 하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궁내에 도량을 설치하기도 했다. 본래는 하층민에서 유행을 하던 선종이 상층부인 사대부 및 황실로 진입을 하면서 선종의 위세는 점점 높아졌다. 이러한 정황이 당나라 초에서 당말 오대까지 이어지면서 선종은 중국불교사에 한 획을 긋는 비약적인 발돋움을 하였고, 선종이 정식으로 성립되면서 비교적 넓은 지역으로 확장 발전해 갔다. 그 과정을 중국의 불교학자인 양증문 교수는 간략히 네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최초의 단계는 당나라 때 도신과 홍인이 전승한 보리달마의 선법으로 황매산을 거점으로 유행을 했던 ‘동산법문’이며, 이것은 중국선종이 정식으로 형성된 표식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즉 보리달마로부터 오조 홍인까지를 선종 발전의 제1단계로서, 시간적으로는 대략적으로 5세기 중엽부터 7세기 중엽까지이다. 보리달마가 남방에 도착해서 소림사 소림굴에서 면벽을 하고 있을 때 선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달마선법의 이해부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위나라의 효문제(孝明帝)가 일찍이 세 번이나 보리달마를 초청한 적이 있었지만, 모두 거절했다고 전해진다. 혜가는 보리달마의 선법을 계승한 유일한 사람으로, 혜가가 전법을 실행하고 있을 때, 마침 남북조시대가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때로, 북위가 멸망하고, 북주무제(北周武帝)의 훼불 등으로 불교의 발전이 매우 저조한 상태로 침체일로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혜가와 승찬도 유랑생활을 하고 있었다(물론 선종 초기에는 고정된 수행처가 없었으므로 모두 두타행을 행했다). 승찬의 법을 계승한 도신은 호북성 황매현의 쌍봉산혹은 빙무산(憑茂山)에서 제자 홍인과 함께 도량을 건립하고 선법을 수행하였으며, 일명 ‘동산법문(東山法門)’을 창립했다(이때부터 고정적인 수행처가 생겼다). 동시대에 강남지역에서는 우두법융 선사가 선법을 전파하고 있었으며, 그의 영향도 매우 컸다. 선종의 사상적 발전과정으로 볼 때, 보리달마는 ‘자교오종(藉教悟宗)’ 및 ‘안심법문(安心法門)’을 제창했고 구체적으로 ‘이입사행론(二入四行論)’을 제시했다. 소의경전으로는 〈능가경〉을 의지했다. 홍인 대에 이르러서도 기본적으로 여전히 보리달마 선법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 이 시기가 바로 선종의 초기단계로서 선종의 제1단계로 명명한다. 이 단계의 특징은 〈능가경〉의 이론을 표준으로 삼았고, 최초로 선종의 집단체제인 승단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중국선종 시작 달마선법 ‘동산법문’
二入四行論, 소의경전 〈능가경〉
집단체제의 승단 조직 구성 시작
당 말, ‘안록산의 난’ 후 남종 공인
마조 총림 건립, 백장 청규 제정

두 번째 단계로, 혜능이 홍인으로부터 법을 전수해서 남방의 소주(지금의 소관) 조계에서 선법을 전한 시기 및 신수의 제자 보적(普寂) 등이 양경(西安 落陽)을 중심으로 광대한 북방에서 전법을 왕성하게 활동을 할 때이다. 혜능의 제자 신회가 북상을 해서 북종과 선종의 정통성을 두고 다툼을 할 때와 기타 제자들이 각지에서 선법을 전파할 때이기도 하다. 즉 선종이 남종 북종으로 병립할 때의 국면을 가리킨다. 즉 신수의 제자와 혜능 및 신회 등이 활약한 시점이다. 이 시기의 선종은 대략적으로 7세기중엽부터 8세기 말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오조홍인은 여전히 전통적인 달마선 즉 ‘능가’ 선을 위주로 하는 선법을 시행했다. 비록 신수와 혜능 모두 오조 홍인의 제자이지만 이 두 사람이 보는 선법의 관점은 아주 큰 차이점이 존재했다. 신수는 오조 홍인과 마찬가지로 달마선법을 기본바탕으로, 단계적 수행법인 점수법을 실행했다. 반면에 혜능은 달마선법을 개선해서 〈금강경〉을 위주로 하는 선법을 펼치면서 돈오법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단계적인 수행법인 점수와 단계를 초월하는 돈오적인 수행법은 수행상에서 각기 다른 인식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고, 자연스럽게 두 개의 파벌이 형성되는 구조가 발생하였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는 것은 곧 각 집단의 이익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점수 위주의 신수선법은 북방을 거점으로 하였기에 북방선이라고 명명하였고, 북방선은 통치계급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 신수 본인은 측천무후 중종(中宗) 예종(睿宗) 등 3대 황제의 예경을 받았으며, 양도(兩都, 서안 낙양)의 모든 불사를 총괄하는 통솔자가 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정치적인 예우를 받기도 했고, 황가사원(皇家寺院)에 거주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당시 혜능의 돈오법은 남방에서 유전되기 시작하였다. 그는 영남(지금의 광동성 광주)의 법성사(法性寺)에 이르러서 법문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그의 영향은 당시 북방의 신수를 따라갈 수 없었다. 당나라 개원 22년(734) 혜능의 제자 하택신회가 선종에서 거행하는 활대(滑台)의 무차대회에서 남종의 돈오법을 알리고 선전함과 동시에 북종선의 숭원법사(崇遠法師)와 변론을 통해 승리하면서 정치계급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 이후 하택신회 및 남종선의 지위가 북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때의 선종은 남종과 북종을 포함한 선종이 전국적인 범위로 확장되면서 중국 전역에 영향을 준 시기이다. 즉 이 시기를 기점으로 선종은 황매현 쌍봉산의 동산법문을 벗어나서 전국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으며, 바로 이시기를 선종의 제2단계라고 한다.

세 번째 단계로, 당나라 말엽 ‘안록산의 난’이 지난 후에 조정에서 남종이 선문의 정통이라고 선포하고, 북종은 쇄락의 국면에 접어들 때이다. 남종이 서서히 득세를 해서 마침내는 남종 천하가 되는 시기이다. 대략적으로 8세기 중엽에서 13세기에 이르는 시기이다. 혜능의 제자인 청원행사 및 남악회양이 활약한 시기에서 원대까지를 포함한다. 즉 하택신회가 필생의 노력으로 수립한 남종선(혜능선)은 남방의 강서 호남일대에서 남악회양과 청원행사 두 사람의 제자들이 온힘을 다해서 전파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비록 이 두 사람과 하택신회는 모두 혜능의 제자로서 같은 법을 전수받았지만, 남악회양과 청원행사의 선법은 상대적으로 혜능선과 하택선 보다는 비교적 더욱 다채롭고 융통성이 있었다고 한다. 즉 단도직입적이면서 간단명료하고, 개방적이면서, 기봉(機鋒, 날카로운 말), 봉(棒, 때리다), 할(喝, 소리지르다) 및 부처님을 꾸짖고 조사를 욕하는 등의 방편을 썼다고 한다. 이시기의 선종은 이론적으로 불교내부 각파의 사상을 융합하였고, 또 유교와 도교의 사상도 회통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사상을 흡수하고 융합한 선풍의 흐름 속에서 점차적으로 위앙 · 임제 · 조동 · 운문 · 법안종이 수립되었다. 이후 양기파와 황룡파가 생겨났다. 이때 마조는 총림을 건립했고, 백장은 청규를 제정하면서 선종은 경제적 자립과 자체 계율을 가지게 되었다. 이때에 선종은 상당한 세력을 가졌지만, 당나라 말엽 오대 송초에 이르러서 점점 쇄약해지기 시작하였다. 또 이 기간에는 공안선이 유행을 했다. 이시기를 선종의 제3단계라고 한다.

네 번째 단계는 당무종이 훼불한 후의 당나라 말과 오대시기를 가리킨다. 선종의 오종(五宗, 五家)이 성립된 시기이다. 물론 이 네 가지의 관점은 학자마다 약간의 이견이 존재한다.

선종은 비록 기타 종파와 같이 판교의 이론은 없었지만, 다만 선종이 흥기한 후에는 스스로 기타 종파와 비교를 시작하면서 선종 스스로 우월성을 강조했다. 물론 기타 종파들이 수용한 것은 아니지만, 선종이 크게 유행을 하자 그러한 관점은 점점 더 완고해져 갔다. 선종은 ‘宗’이라고 자칭하였고, 기타 제종파를 모두 ‘教’라고 칭하였고, 제종파를 싸잡아서 ‘교종’이라고 폄하하였다. 선종이 선종의 우월성을 내세우는 논리는 이러하다. 선종은 위로 부처님 법을 전승한 유일한 전승자로서, 선법의 내용은 ‘佛心’ 혹은 ‘心地法門’이라고 했다. 신회는 “육대조사가 이심전심으로 문자를 여의었고, 위로부터 서로 전승하였다.”고 했으며, 〈고전숙어록(古尊宿語錄)〉에서는 “비로소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을 아는 것은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다. 언설에 있지 않다.”고 기록하고 있다. 〈벽암록〉에서도 “이른바 교외별전은 오직 심인(心印)을 전해서 직지인심 견성성불하는 것이다.”고 했고, 〈치문경훈〉에서도 “고로 달마가 서쪽에서 와서 문자를 세우지 않은 것은, 직지인심 견성성불하기 위함이다. 이른바 교외별전은 교 밖에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의 도리로서 오직 이 마음을 밝히는 것이며 교상(教相)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러한 내용은 모두 선종의 우월성 내지 교종을 폄하할 때 사용하는 전문 어구들이다. 이러한 어구들은 선종이 유행을 하면서 아무 비판 없이, 즉 펙트 체크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전해져 온 것도 사실이다.

〈동국대 강사〉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융성한 불교문화 꽃피운 비운의 민족



최재희의
비긴어게인 미얀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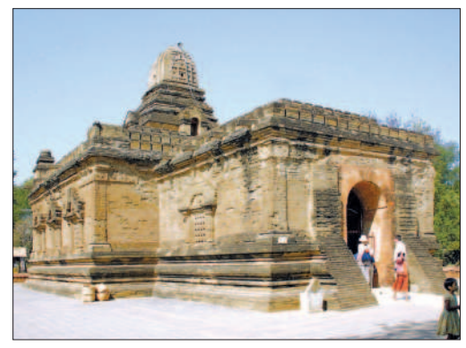
⑦ 바간 왕조와 몬(Mon)족



마누하 사원은 따톤왕국의 마지막 왕인 마누하 왕이 바간에 포로로 끌려 온 뒤 조성한 사원이다. 사진은 사원내 와불상 모습.



마제디 비문.



난파야 사원 전경.

역사서를 들여다보면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전쟁을 통해 승리한 자들의 문화는 남고 패배한자들의 문화는 사라지거나 희미한 빛으로 기억될 뿐이다. 승전국(勝戰國)은 패전국(敗戰國)의 언어와 문화를 말살시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한다. 하지만 미얀마 역사를 보면 예외의 경우를 찾을 수 있다. 바로 '바간(Bagan)'에 영향을 준 몬(m-Mon)족이다.

바간은 티베트-버마족이 세웠지만, 바간 시대의 융성했던 불교문화는 바간 왕조가 침략했던 따톤(Thaton, 몬 족이 세운 왕국) 왕국의 문화를 전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지배계층이 자신들의 문화를 피지배계층에게 강요하기보다 피지배계층의 문화를 통해 바간 왕조의 문화를 창조했다.

몬(mon)족은 미얀마에서 독립된 왕조를 2번이나 건립했다. 바간 왕조 시기 이전의 따툰 왕조와 바간 왕조가 망한 후 세운 한따와디(Hanthawaddy) 왕조가 있다. 몬족의 문화가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리적 조건에 있다. 몬족은 처음에 미얀마에 와서 따톤 왕국을 세우면서 미얀마 남부에 자리를 잡게 된다. 그들은 미얀마 남부의 안다만 해(Andaman Sea)에 있는 마르타반 만(Gulf of Martaban)을 통해 다른 나라와 무역을 했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문화가 발전했다. 몬족은 말레이-인도네시아(Malayo-Indonesian)종족의 후손으로, 몬-크메르어(Mon-Khmer)를 사용했던 초기 태국, 캄보디아 사람들과도 관련이 있다. 몬족에 대한 오랜 기록은 미얀마 뿐만 아니라 태국과 캄보디아에서도 찾을 수 있다. 6세기와 7세기경에 작성된 캄보디아 비문에는 몬족이 'Raman'과 'Rmman'으로 기록되어 있고 9세기와 10세기에는 'Ramanya'로 기록되어 있다.

몬족, 미얀마서 2개의 독립왕조 건립

따톤 왕국은 마르타반 만을 통해 여러 나라와 교류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인도와 중점적으로 무역을 통해 많은 교역을 했다. 마르타반 만을 통해 무역 뿐만 아니라 인도의 아소카왕 시기에 불교가 전파되었다. 아소카 왕은 스님들을 따톤 왕국에 보냈고 그 이후에 테라와다 불교의 중심지가 되었다. 또한 몬족은 자체적으로 언어를 갖고 있었다. 훗날 몬족의 언어는 바간 시기의 지배층 계급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이른 시기에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삼장(三藏)을 보유하고 있었고 수준 높은 불교 조각가와 문학가들이 존재했다. 이러한 이유로 따톤 왕국은 주변 왕국들에 비해 수준 높은 불교 교리와 문화적 근간을 가졌다.

바간에 남아있는 사원 중에 따톤과 관련해서 슬픈 사원이 2곳이 남아있다. 아노야타 왕은 삼장을 빌려주지 않은 따톤 왕국을 전쟁을 통해 정복했다. 따톤 왕국의 마지막 왕인 마누하(Manuha) 왕은 포로로 바간에 끌려오게 되었다. 마누하 왕은 아노야타 왕에 허락을 받아 사원을 만들었다. 자신의 답답함을 표현하기 위해서인지 사원은 3개의 좌불상과 1개의 와불상이 있는데 매우 비좁게 지어졌다. 이 사원은 마누하 사원(Manuha temple)이라고 불리며 그 옆에는 마누하 왕이 감옥 생활을 한 난파야 사원(Nanpaya Temple)이 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불심을 담아 사원을 지은 마누하 왕을 통해 따톤 왕국의 불교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바간의 첫번째 왕인 아노야타(Anawrahta) 왕은 따톤 왕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삼장뿐만 아니라 스님들과 불교 조각가와 문학가들을 대거 바간으로 데리고 왔다. 아노야타 왕은 바간 왕국에 있는 각 절마다 삼장 필사본을 보급하면서 불교의 대중화에 힘썼다. 또한 바간의 탑을 짓기 위해서 따톤 왕국에서 데리고 온 불교 조각가를 통해 몬 양식을 받아들였다. 몬 문학가들을 통해 불교를 바탕으로 한 문학을 전적으로 수용했다. 아노야타 왕은 불교의 진흥을 위해 경전 뿐만 아니라 문화가 중요함을 알았기 때문에 문화와 관련된 예술가들을 처단하지 않고 바간으로 데리고 온 후 바간 문화의 기틀을 세웠다.

아노야타 왕의 뒤를 이은 짠싯타 왕도 몬족 문화를 바간에 융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짠싯타 왕은 버마족과 몬족이 지배종족과 피지배종족으로 나누기보다 동등한 민족으로 통합되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는 버마족과 몬족의 화합을 위해 결혼정책으로 화합을 꾀했다. 짠싯타 왕은 몬족 출신의 여자를 자신의 왕비로 받아들였다. 또한 그는 몬족의 언어로 된 비문을 많이 남겼을 뿐만 아니라 실제 통용되는 언어로 사용했다. 바간 왕조에서도 몬족의 언어가 꾸준히 사용되었다는 것은 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지리적 이점으로 문화적 발전**
> **자체언어 · 빠른 불교 수용으로**
> **수준 높은 불교문화 · 교리 갖춰**
> **바간 왕조에 침략당한 후에는**
> **불교문화 싹틔운 씨앗으로 역할**

역사와 문학적으로 소중한 가치를 지닌 마제디 비문(Myazedi Inscription, 혹은 라자꾸마라 비문 'Yazakumar Inscription', 구바욱지 비문 'Gubyaukgyi Inscription)은 빨리어(p-Pali), 몬어(Mon), 뷰어(Pyu), 미얀마어(Myanmar)인 4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 이 비문은 짠싯타 왕의 아들인 라자꾸마라(Yazakumar)가 짠싯타가 사망하고 1년 뒤에 만들었다. '아버지에게 왕위를 물려 받지 못 했지만, 아버지를 많이 사랑하고 존경한다' 라는 효심 가득한 비문 중 한 면이 몬족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

바간은 몽골의 침략으로 멸망했다. 멸망 이후에 미얀마는 잉와 왕조(북부 미얀마)와 한따와디 왕조(남부 미얀마)로 나눠지게 된다. 한따와디 왕조는 샨족 출신의 와리루(Wareru)왕이 몬족을 포용하면서 세운 강력한 왕조다. 이 왕조는 야자드릿(Razadarit,1393-1423) 왕 , 신소부(Shinsawbu, 1453-1472) 여왕 ,담마제디(Dhammazedi , 1472-1492) 왕의 시기 때 한따와디 왕조의 불교 황금기 시대가 열렸다.

신소부 여왕은 현재 쉐다곤 파고다의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 신소부 여왕은 자신의 몸무게와 비슷한 약 40kg의 황금을 준비하여 쉐다곤 파고다에 보시했다. 이것이 훗날 왕들과 일반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현재 쉐다곤 파고다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신소부 여왕의 뒤를 이은 담마제디 왕은 원래 신소부 여왕의 왕사(王師)였다. 신소부 여왕은 자신의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자 왕사였던 '담마제디'를 환속시킨 후 딸과 결혼시켰다.

왕조 사라져도 몬족 불심은 견고

담마제디 왕도 신소부 여왕과 같이 쉐다곤 파고다에 대한 애정이 가득했다. 여왕이 자신의 몸무게 만큼의 황금을 보시한 것처럼 담마제디 왕도 똑같이 황금을 4번 보시했다. 또한 쉐다곤 파고다에 금, 은, 철로 만든 거대한 '담마제디 종(Great Bell of Dhammazedi)'을 보시했다.

하지만 훗날 포루투칼 상인이 이 종을 본 후배의 대포를 만들기 위해 훔쳐서 양곤강을 지나다가 빠뜨려 종을 잃어버린 아픈 사연을 갖고 있다.

바간 왕조 이전부터 몬 족의 따톤 왕국은 인도의 아소카 왕에게 불교를 전해 받았다. 시간이 흘러 바간 왕조에 침략을 받았지만 그들의 유고한 불교 정신과 문화는 바간에 불교문화가 꽃 피울 수 있는 씨앗이 되어 사라지지 않았다. 바간이 망하고 나서도 자신들의 왕조를 새로 만든 몬족의 불심은 시간이 흐른 만큼 더욱 더 견고 해졌다. 미얀마 불교의 지대한 영향을 준 몬 족의 불심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곁에도 살아 숨 쉬고 있다.

〈양곤대 박사과정〉

남의 모양을 흉내 내지 말라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⑭ 평상심

"대덕들이여, 시간을 아껴야 한다. 옆길로 빠져 바쁘게 돌아다니며 선을 배운다, 도를 배운다, 하면서 명구(名句)를 가지고 아는 척하며 부처를 찾고 조사를 찾거나 선지식을 찾아 그 뜻을 시험해 보려는 사람들이 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단지 그대들에게 부모는 하나뿐이다. 다시 무슨 물건을 구하려 하는가? 그대들 스스로가 자기 내면을 보아라. 옛사람이 말하기를 '연야달다(演若達多)가 자기 머리를 잃어버렸다고 찾아 헤맸지만, 찾아 헤매는 그 마음을 쉬었을 때 아무 일이 없었다.' 고 하지 않았던가?

대덕들이여, 무엇보다 평상심이 중요하니 남의 모양을 흉내 내지 말라. 좋고 나쁨도 구별하지 못하는 머리 깎은 노예 같은 무리들이 있어 곧잘 나는 신을 보았다거나 귀신을 보았다면서 동쪽이다 서쪽이다 가리키면서 맑은 날이 좋다 비오는 날이 좋다 하나니 이런 무리들은 모두 빚을 지고 반드시 염라대왕 앞에 가서 뜨거운 쇳덩이를 삼키는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좋은 집안의 남녀들이 이들 여우나 도깨비 같은 무리들에게 홀려 괴상한 짓들을 하고 있다. 눈먼 중생들이여, 시주 밥 값아야 할 날이 있을 것이다."

선을 주체적인 자아확립을 위한 수행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내가 누구냐?"는 자기 정체를 파악하는 것이 견성(見性)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은 철저한 자기 탐구라고 말할 수 있다. 〈임제록〉을 읽으면 이러한 자기 확인에 대한 경책의 말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선을 배우고 도를 배우는 것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자신의 내면을 반조(返照)하라고 일러준다. 반조란 보통 회광반조(廻光返照)라는 사자성어로 말하는데 외부 경계에 끌려가는 마음을 안으로 되돌려 고요히 자신의 심성을 관하는 것을 말한다. 육근(六根)의 창밖에 전개되는 것을 내다보지 말고 시선을 거두어 보고 듣는 성품을 관하라는 말이다. 옛 선시(禪詩)에 "청산은 티끌 밖의 모습이요 명월은 선정 안에 있는 마음이네. 꽃을 보고 색의 공함을 깨닫고 새소리를 듣고는 듣는 성품을 밝힌다.(靑山塵外相 明月定中心 看花悟色空 聽鳥明聞性)"고 하였다.

연야달다(演若達多)는 〈능엄경〉 4권에 나오는 사람 이름인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다 광기(狂氣)가 발동 자기 얼굴이 없어졌다 하고 얼굴을 찾아 실라벌성 거리로 뛰쳐나갔다는 이야기다. 그리하여 미혹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다.

평상(平常)은 광기가 쉰 상태를 말한다. 연야달다의 광기가 쉬면 평상이다. 머리는 본래 없어졌던 것이 아니다. 아무 일이 없었는데 홀연히 광기가 발동한 것이다. 보통 평상심이라 하면서 이것이 도(道)라고 하였다.

어느 날 조주 선사가 스승인 남전보원(南泉普願) 선사에게 물었다.

"도가 무엇입니까?"

남전이 대답했다.

"평상심이 도이니라."

대화는 계속된다.

"평상심이 도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그 도를 붙잡을 수 있습니까?"

"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잡을 수 없다."

"손에 넣을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이 '도' 라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도는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도 없다. 생각으로 아는 것이라 하면 그건 망상이 되고 알지 못하는 것이라 하면 자각이 없는 것이다. 안다든가 알지 못한다든가 하는 분별을 없애면 바로 거기서 도가 나타난다."

여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道不屬知不知(도불속지불지)' 다. 도는 아는 데 속하지 않고 모르는 데 속하지 않는다.

"남의 모양 흉내 내지 말라."는 것은 선의 절대 독립을 강조하는 말이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결코 모방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자기를 찾기 위해서 남을 흉내 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예로부터 이런 말도 전해진다.

"장부에게 스스로 하늘을 찌르는 뜻이 있으니 여래가 간 곳을 따라가지 말라.(丈夫自有衝天志 莫向如來行處行)"

〈조계종 고시원장〉

"佛心 염함이 붓다, 妄 염함이 범부"



세상 속 경전읽기

⑭ 도신(道信) 대사의 일행삼매

중국 선종에서 보리달마를 초조(初祖)로 하는 것이 통례이나, 돈황 발굴문서인, 정각(淨覺)이 지은 〈능가사자기(楞伽師資記)〉에는, 구나발다라(求那跋陀羅)를 초조로 보리달마를 2조로 묘사하고 있다. 구나발다라가 번역한 4권 〈능가경(楞伽阿跋多羅寶經 (T0670)〉을 소의경전으로 하는 능가종(楞伽宗)의 능가사(楞伽師) 2조가 보리달마인 셈이다. 따라서 〈능가사자기〉에 의하면, 선종 3조 승찬은 능가종 4조, 4조 도신은 능가종 5조, 5조 홍인은 능가종 6조, 6조 신수(神秀)는 능가종 7조가 되고, 능가종 8조는 보적(普寂) · 경현(敬賢) · 의복(義福) · 혜복(惠福) 등을 들고 있다. 6조 혜능은 능가종 6조 홍인의 제자로 신수와 사형제이니 능가종 7조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6조 혜능 대사의 일행삼매(一行三昧)는 4조 도신(道信) 대사의 일행삼매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다. 〈능가사자기〉의 제5 도신장(章)에는 기주(蘄州) 쌍봉산의 도신선사가 승찬의 뒤를 이어 선문(禪門)을 다시 크게 열어 천하에 유포했다고 한다, 저서로 〈보살계법(菩薩戒法)〉 1본(一本)이 있고, 〈입도안심요방편법문(入道安心要方便法門)〉을 지어 인연 있고 근기가 익은 이에게 설하였다.

"나의 이 법요(法要)는 〈능가경(楞伽經)〉에서 말한 '제불(諸佛)의 심(心)이 제일이다.' 고 한 법문에 의거하며, 또한 〈문수설반야경(文殊說般若經)〉의 '일행삼매' 에 의거한다. 즉 불심(佛心)을 염(念)함이 붓다이고, 망(妄)을 염함이 범부이다." [說我此法。要依楞伽經。諸佛心第一。又依文殊說般若經。一行三昧。即念佛心是佛。妄念是凡夫]

〈楞伽師資記T2837_.85.1286c22-c24〉

또 이어서 설하기를 "일행삼매는 법계 곧 일상에 합치하는 것이고, 일행삼매에 들려면 반야바라밀을 먼저 듣고 배워서, 고요한 곳에서 산란한 생각을 버리고, 모습도 취하지 말고, 마음을 일불(一佛)에 모아 오로지 염념상속으로 염불해서 일체종지와 일체공덕을 얻는다"고 하였다.

"〈문수설반야경〉에 설하였다. 문수사리보살이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을 일행삼매라 하나이까?'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법계[法界, 성스러운 현상을 내는 원인이며 바탕인 진여, 또는 모든 현상과 사물]는 일상[一相, 모든 현상의 차별도 대립도 없는 있는 그대로의 평등한 모습]이니, (그러한) 법계에 계연[繫緣, 합일, 합치]하는 것, 이것을 이름하여 일행삼매라 하느니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일행삼매에 들어가고자 할 때에는 마땅히 먼저 반야바라밀을 듣고, 그 반야바라밀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배운 연후에야, 능히 일행삼매에 들어가 법계에 그대로 합치하여, 후퇴도 물러남도 없고 또는 파괴함도 없고, 부사의하고 걸림도 없고 또는 상이 없다. 선남자 선여인들이 일행삼매를 정작 공부하려고 할 때는, 시끄러운 인연이 없는 한가한 곳에서 모든 산란한 생각을 버리고, 상을 취하지 않고 마음을 일불(一佛)에 매어 두고 오로지 (붓다의) 명호(名號)를 외어야 한다. 붓다가 계신 방소(方所)에 따라 단정히 바로 향하고 앉아, 일불(一佛)에 대해 생각생각이 끊이지 않을 때에는 즉시 그 생각 가운데 능히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제불을 다 본다. 왜냐하면 일불(一佛)의 무량무변한 공덕을 생각하면, 바로 무량한 부처님 공덕을 다 감견(感見)하여 제불공덕과 둘이 아니고, 부사의한 불법(佛法) 등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모두 일여[一如, 차별 없이 평등함]이므로 무상정등정각을 성취하고, 한량 없는 공덕과 한량 없는 변재(辯才)를 모두 갖추느니라. 이와 같이 일행삼매에 들어간 이는 항하사(恒河沙) 제불법계의 무차별한 모습을 모두 다 아느니라."

〈文殊說般若經 T0232_.08.0731a24-b09〉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⑥⓪ 이해의 길 40

원불교는 불교인가?

지난해 불교계에서 묘한 상황이 벌어졌다. 원불교가 제30차 세계불교도우의회(WFB, World Fellowship of Buddhist) 총회를 개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단체는 1950년 5월 붓다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전 세계 불교도들의 단결과 우애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스리랑카 콜롬보에 27개국이 모였는데, 현재는 37개의 나라에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조계종을 비롯하여 진각종, 원불교 등 7개 지부가 운영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원불교도 이 단체에 참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원불교는 불교란 말인가?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원불교가 WFB 총회를 개최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원불교는 불교 종단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일을 계기로 원불교는 불교인가, 아닌가 하는 정체성의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원불교가 국내에서는 독립적인 종교를 표방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불교의 한 종파로 인식되고 있다. 영어식 표현인 'Won-Buddhism' 만 보더라도 누구든 아무런 의심 없이 원불교를 불교의 한 종파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불교의 정체성 논란이 생기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원불교가 불교의 한 종파라고 인정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실제로 원불교는 그러한 역사를 갖고 있다. 교조인 박중빈(朴重彬, 1891-1943) 대종사는 본래 원불교가 아니라 '불법연구회(佛法硏究會)' 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였다. 글자 그대로 붓다의 가르침을 연구하는 모임이란 뜻이다. 그들이 '원불교' 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한 것은 대종사가 열반한 이후의 일이다. 원불교는 1967년 대한불교총연합회에도 공식적으로 참여했으며, 앞서 언급한 WFB 원불교지부도 설립하였다. 명실상부한 불교의 한 종파였던 것이다. 그런데 1970년대 중반 원불교는 연합회에서 탈퇴하고 독자적인 길을 걷기 시작하였으며 오늘날 불교, 천주교, 개신교와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4대 종교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다.

흔히 종교를 구성하는 요소로 교주, 교리, 교단 3가지를 들고 있다. 불교의 경우 붓다(佛)와 가르침(法), 승가(僧) 삼보(三寶)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는 조계종이나 화엄종, 천태종, 진각종 할 것 없이 모든 종파가 공유하고 있는 정체성이다. 비록 각 종파의 창시자, 즉 종조(宗祖)는 다르더라도 교주(敎主)는 붓다 한 분이다. 예컨대 대한불교조계종의 경우 종조는 도의국사(道義國師)지만, 교주는 석가모니다. 원불교도 불교의 한 종파로서 소태산 대종사를 종조로 삼고 붓다를 교주로 삼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원불교는 이와는 다른 길을 선택한다. 원불교가 불교의 한 종파로 될 경우 그동안 쌓아온 4대 종교로서의 위상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1999년 불교계에서 원불교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복귀를 강하게 원했지만, 그들이 수용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도 여기에 있었다. 이제 원불교는 외형적으로 불교와는 다른 종교가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불교의 WFB 총회 개최는 마치 뿌리가 같다고 해서 천주교 국제행사를 개신교에서 여는 것과 같은 이상한 일이 되어버렸다.

어찌 보면 원불교는 자기모순에 빠진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원(圓)을 사상적 특징으로 하는 불교이면서, 불교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불교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불교와 다르다는 모순에 빠진 것이다. 불교와 원불교의 차이는 화엄불교와 천태불교, 유식불교의 차이처럼 본질적이 아니라 지엽적인 것이다. 원(圓)과 화엄, 천태라는 차이를 갖고 있지만 불교라는 본질을 공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천태, 화엄, 유식은 정삼각형이나 직각삼각형처럼 모양이 다르더라도 삼각형이라는 동일한 본질을 갖고 있는데, 원불교만 사각형으로 불리는 형국이다.

원불교가 불교와는 본질이 다른 소태산 대종사를 교주로 하는 종교라면, 불교라는 이름 대신 다른 선택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 다른 종단처럼 원(圓)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불교와 함께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궁금하긴 하다. 대종사라면 어느 길을 선택했을지.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마음 아픈 이에 주는 감로수, '명상'

명상書 톺아보기

김정호의 〈MPPT 워크북〉

〈1〉 MPPT의 정의와 목적



배고픈 사람을 돕는 방식은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나눠볼 수 있다. 전자는 당장의 허기를 해결해주지만 일시적 해결책이다. 후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배고픔에 대한 지속적인 해결책이다. 남의 도움없이 스스로 자신의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을 돕는데 있어서도 당장의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힐링의 방식이 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마음을 이해하고 다루는 방법을 가르쳐주어 심리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가도록 하는 심리교육의 방식이 있다. 마음챙김 긍정심리 훈련(Mindfulness & Positive Psychology Training, MPPT) 프로그램은 후자의 방법을 제공한다.

MPPT는 마음을 알고 다루는 방법, 즉 마음의 특징과 작용에 대한 지식과 마음 다루는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다. 한마디로 MPPT는 마음공부다. MPPT의 목적은 마음공부를 통해 지혜를 기르고 행복과 성장의 삶을 사는 것이다.

MPPT의 마음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지식과 마음기술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인가? 그렇다. 우리는 마음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다. 또 마음을 다루는 기술 역시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부적절한 기술을 학습한 경우도 많다. 많은 경우 바르지 않거나 비효율적인 마음지식과 마음기술이 우리 삶의 고통의 원인이다. MPPT의 마음공부를 통해 바른 마음지식을 배우고 건강한 마음기술을 익힐 수 있다.

MPPT의 마음지식은 마음의 특징과 작용에 대한 지식을 말하며, 동기상태이론, 구성주의, 정보처리용량 제한성, 마음사회이론 등이 대표적으로 포함된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들 4가지 대표적인 마음지식은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과 행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마음지식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고통의 감소와 행보의 증진에 필수적이다. 또한 마음지식은 마음기술을 이해하고 배우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MPPT의 마음기술은 크게 명상, 마음챙김, 긍정심리의 전략으로 구분된다. 명상, 마음챙김, 긍정심리의 전략이 심리적 및 신체적 스트레스나 증상을 경감하고 웰빙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은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고, 그 자체로 뿐만 아니라 여러 심리적 중재법들과 결합해서 사용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다룬다.

MPPT가 추구하는 성장이란 자기성장을 말하며 마음공부를 통해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성숙한 인간은 누구인가? 성숙한 인간은 마음지식에 대한 이해가 깊고 마음기술의 숙달도가 높은 사람이다. 성숙은 과정이다. 최종 목표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꾸준한 공부를 통해 마음지식을 더 깊게 이해하게 되고 마음기술이 더 숙달될 뿐이다.

지혜는 지식과 다르다. 마음공부를 통해 배운 마음에 대한 지식이 실생활의 다양한 상황에서 활성화되고 실제로 적용될 수 있을 때 그 지식은 지혜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마음지식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가슴으로 깊이 아는 것은 다르다. 마음지식이 삶의 다양한 장면에서 활성화되고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마음기술도 마찬가지다. 마음기술은 마치 무여를 연마하듯이 꾸준한 연습을 통해 숙달된다. 분명한 것은 마음지식이나 마음기술 모두 생활 속에서 자꾸 적용할수록 이해가 깊어지고 숙달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행복이란 스트레스를 줄이고 웰빙을 늘리며 동기를 조화롭게 충족시키는 것이다. 중독의 경우처럼 특정한 동기만을 충족시키며 동기 추구에 있어서 전체적인 조화를 잃은 경우에는 행복이라고 부르기 어렵다. 마약 중독이나 도박 중독만이 아니라 일중독 역시 동기의 추구에 있어서 조화와 균형을 잃은 것이다. 거창한 일만 중시해서 일상의 작은 즐거움을 누릴 줄 모른다면 조화로운 행복상태라고 하기 어렵다. 스트레스는 동기가 좌절되거나 좌절이 예상되는 지점이고, 웰빙은 동기가 충족되거나 충족이 예상되는 상태이다. 자세한 내용은 동기상태이론에서 다룬다.

성장, 즉 성숙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은 행복에서도 중요하다. 성장을 위해서는 마음공부를 통해 마음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자기성장의 동기가 확립되어야 한다. 성장동기가 있을 때 성장의 과정은 성장 동기의 충족에 따른 행복을 수반하게 된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배움의 동기를 충족시키는 즐거움, 행복이다. 성장의 동기를 세우면 마음지식과 마음기술을 배워가고 연마해가는 성장의 과정에서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 유념할 점은 성장의 동기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역시 편중되면 안 될 것이다. 일상에서 너무 진지하기만 해서 농담과 유머를 구사하거나 즐길 줄 모른다면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행복상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 "마음 특징, 작용 다룬 기술
> 지혜 기르고, 행복 성장시켜
> 마음 사용법 다시 익혀 보자"

마음지식과 마음기술은 한번의 학습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숙달되는 것이다. 특히 우리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불건강한 마음지식과 마음기술을 습득해왔기 때문에 이들을 상쇄하고 건강한 마음지식과 마음기술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반복학습과 숙달이 필요하다. MPP의 T(training)는 이런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심리적 및 신체적 증상은 불건강한 마음지식과 마음기술이 주요한 원인이다. 마음지식에 대해 올바르게 배우고 마음을 다루는 마음기술을 익히는 과정을 통해 불건강한 마음지식은 올바른 마음지식으로 대체되고 불건강한 마음기술은 건강한 마음기술로 상쇄되거나 소거된다. 따라서 건강한 마음지식과 마음기술을 배우고 숙달하는 것은 훈련이면서 치료이기도 하다. 이렇게 본다면 MPPT는 '마음챙김 긍정심리 치료'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마음의 영역에서 학습과 교육은 치료이며, 치료는 학습과 교육이다.

MPPT는 마음공부다. 마음공부를 통해 성숙한 사람을 지향한다. 마음지식과 마음기술을 공부하는 마음공부를 하면 나를 알고 나를 다루는 능력, 즉 자기관리능력이 향상된다. 자기관리능력은 삶의 여러 장면에서 필요하다.

마음공부와 인성교육

우리는 학교를 다니며 삶을 잘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운다. 그러나 학교에서 배우는 삶의 지식과 기술은 대부분 세상을 이해하고 다루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로 되어 있다. 사회를 배우고 자연을 배운다. 수학과 공학을 배운다. 국어와 외국어를 배운다. 모두 세상을 알고 세상을 통제하는 지식과 기술들이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부분의 교육은 바깥 세상에 대한 앎에 치중되어 있다.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한 지식과 기술의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나에 대한 앎이 빠져있다.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 마음지식과 마음기술을 가르치는 마음교육이 필요하다.

지식만을 가르치고 지식만으로 줄을 세우는 높은 경쟁의 압력 속에 생활해야하는 학생들에게 행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왕따, 학교폭력 등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에는 자해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고, 청소년 자살률은 OECD회원국 중 1,2위를 다투고 있다.

메마른 지식 위주의 교육에 대한 고육지책으로 우리나라에는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되어 2015년 이후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학생들에게 인성을 교육하는 교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학교문제가 개선되었다는 보고도 접할 수가 없다.

인성교육진흥법에서 말하는 인성교육의 정의는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며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사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교육내용이다. 자칫 고리타분한 도덕교육처럼 되어서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MPPT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지 않는다. 마음이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배우며, 마음을 다루는 실제적인 방법을 익힌다. 또한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마음기술을 배운다. 사람은 누구나 잘 살 고 싶고, 행복하기를 바란다. 마음을 바로 알고 바르게 다루는 기술을 배양하면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 줄 알게 된다.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알게 되면 자연히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의 중요성도 알게 된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게 되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능력 또한 증가하게 된다. MPPT의 마음공부를 통해 우리는 인성교육이 목표로 하는 인성을 갖춘 성숙한 사람이면서 또한 행복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양성하게 된다.

언젠가는 MPPT프로그램과 같은 마음지식과 마음기술을 가르치는 마음교육의 교과목이 국어 영어 사회 자연 음악 미술 체육 등의 교과목처럼 학교에서 가르치는 정규과목이 되기를 희망해본다. 마음지식과 마음기술은 가급적 어릴적부터 배울 수 있으면 더 좋을 것이다.

저자 **김정호 교수**는…



고려대 대학원에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한국건강심리학회 산하 마음챙김-긍정심리연구회 회장, 서울심리지원동북센터장으로 있다. 한국심리학회장과 대한스트레스학회 이사장, 한국건강심리학회장,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역임했으며, 한국심리학회 학술상을 수상했다.

주요 저서로는 〈마음챙김 명상 멘토링〉, 〈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즐거움〉, 〈스무 살의 명상책〉, 〈생각 바꾸기〉, 〈마음챙김 명상 매뉴얼〉 등이 있다.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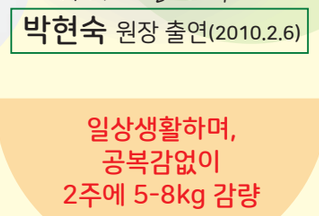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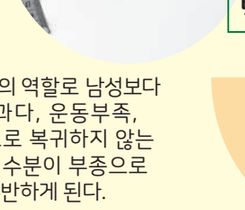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288호 | 15 | 전면광고

온갖 형상을 그릴 때에 좋고 추한 것이 화공을
따르듯이 착하고 착하지 못한 업의 인연은
모두가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네.



부처님 말씀 읽기 - 《제법집요경》에서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 찰 행 사 전 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튜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허리병 고치는 법 받을분 배울분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 내 몸에 맞는 체조로 허리병 고친다
중풍예방. 디스크. 협착증. 불면증.
성인병 등 각종 질병
한번만 오시면 퇴치 가능
2대째 이어온 운동법 발명 특허 획득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검색
50년 전통 상담
010-3829-7582

불 교 용 품
고 가 매 입 전 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금동아미타 삼존불 -양도-
(네이버검색)
부처골 지장선원
010-8585-4908

입종 동참안내
부처님의정원 · 사암
포교원 · 선원 · 불교문화원
종단 · 단체 · 연합회
입종 동참바랍니다
한국불교 종무청
010-5412-8040 법광

★책-검색★
①인생최고의 깨달음(참불교)
②천기소설 예언자(현존불)
③기도와 명상(최상수행법)
④천등산(신통해탈기도비법)
⑤출세의 기술(성공출세술)
⑥운타이밍재테크(평생부자)
네이버에 위 책이름 또는 작가 '태산선사' '손재찬' '손도사'등을 꼭 한번 검색 • 구입해 보세요!!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3263-6544
010-5270-8260

운명학 단기완성
데이터 기반 명리학과
특별한 비법 단기 강의,
스님께 확신이 됩니다
3개월 단기완성 | 수업료 : 5백만원 교육시간 : 주2회 (2시간씩)
문의 010-2480-5677
(아는소리 명리학당 총무)
한국불교태고종 지성선원(창원시 성산구)

사찰화재 보험
●목조건축물 OK!!●
전국 최다 사찰 가입
010-7344-1881

디자인 명리학 수강생모집
운명을 디자인한다
지금까지 이런강의는 없었다
보다 쉽고 정확하게 간명할 수 있는 신개념의 사주명리학
(기초부터 고급핵심이론까지 1년과정)
여기저기서 배워도 제대로 통변할수 없었는 분들 초보자, 스님, 무속인, 일반인 모두 환영
문의 운명디자인연구소 010-7328-0089

황토장뚜껑 판매점
• 1개 : 2만 5천원 3개이상 주문택배
• 판매점은 100개이상 주문생산
• 지장성모님 법당등록 설계
법당불 100만원, 가족불 50만원
무속인 사절, 불교보살만 접수
구비서류 : 등본, 사진, 이력서, 거래통장사본 준성직자 보살 처사님 승려고시함
회불대학 043-745-3332
충북 영동군 용산면 율리길 155-28

"그곳에 가서 빌면 원하는대로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
위 내용은 국도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한국지명유래집) 경상편 P.785에 있는 국가 기록 문서입니다. 이 사실을 2019년에 발견하여 우선 컨테이너기도실로 마련하였아오니 누구든지 오셔서 기도 성취 소원의 꿈을 이루십시오.
관련책자 (기도치료원리 그 바깥일들) 280쪽이 필요하시면 책값과 운송료포함, 20,000원입니다.
입금계좌: 우체국 611038-02-004763
농협 352-0943-7979-03 정보석
안내: 010-3557-2773, 010-2093-3385
여의 기도 대성지 도량 건립 발원자 드림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
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남(男)·여(女)관계 ★고민★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 영통도사 명진 -
010-4912-3544

50년
하루에 전수, 스님에 한합니다.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1-741-08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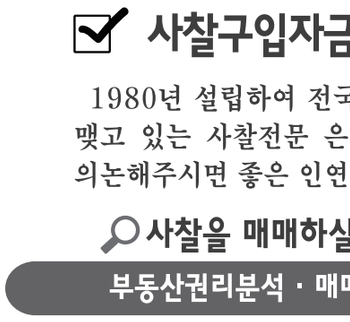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후공부100%(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함
문의: 054-753-8228, 010-8852-0075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질병, 간암, 묘터, 유산낙태, 조상영가, 교통사고, 이혼수, 직장 승진운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명리구성학, 육임학, 성명학
상담문의 010-4014-8822

• • •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해주실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 •
고양시 북한산 사찰
02-353-5016

• •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남 예산)
• • •
010-5576-2271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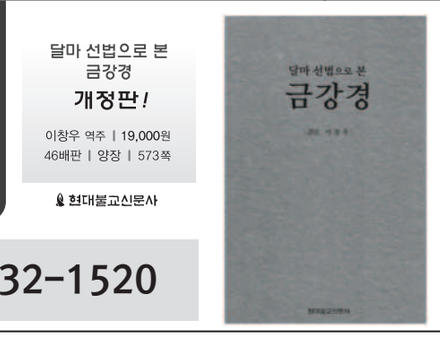
화제 "빨간 속옷"을 입으면 행운이 온다
"돈이 좋아하고, 따르는 속옷이 있습니다"
붉은악마(치우천왕)은 2002년도 우리나라 축구를 세계4강에 승리하는 기적을 일으켰다!!! 치우천왕 유래에 따르면 그 옛날 '전염병'이 도질때 우리조상들은 '장승'의 모양으로 마을어귀에 세워 전염병을 막게 하였다. "운이 있는 사람과 운이 없는 사람을 일평생 비교하면 누가 더 큰 손해인가?" 지금 '코로나19'가 우리나라 전국에 퍼져 온 국민이 걱정이다. 좋은 운이 따르는 '치우천왕 빨간 속옷'을 비법으로 꼭 입으시어 나와 내 가족이 나쁜 운을 만나지 않게 되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고 돈도 들어오게 되고 건강하고 부자로 잘사시기를 바라는 바이다.
치우천왕 빨간속옷 2장 ~~10만원~~ ⇨ 5만원
Daum 카페에서 치우천왕 정담 을 검색하세요.
국민은행 324702-04-162923 예금주 : 배정민
상담전화 010-4500-8234

명리·육효강좌
(연결카페http://cafe.naver.com/baikamsa 백암역리원)
영가반 ◦ 초보에서 실천완성
명리·육효학 ◦ 초보반 : 명리·육효 기초가 전혀없는 왕초보
◦ 실전반 : 명리·육효 기초 완성자
백암역리원 02)597-1101
오시는 곳 : 사당역 8, 9번출구 먹거리골목200M

수강생 모집(그림)



• 수업 :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 장소 : 서울 인사동 미술 교육관 (종로오피스텔 4층 401호)
• 매주 수·목요일 주 2일 [월 8일]
• 수강료 : 월10만원
그림에 소질이 없어도 관심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연락바랍니다.
청곡 이한동 화백 010-3747-869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구입 문의 | 02-732-1520
입금 계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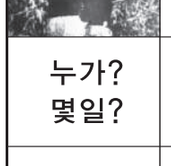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대방광불화엄경 속의 내재된
찰라지간에 성불하는 비법!!
1. 화엄경은 여래가 설(說)한 경이 아니다. 여래에 대(對)한 경이다.
2. 화염경에서의 여래는 비로자나 부처님이다.
3. 법신부처님은 잠시도 쉼 없이 장엄정토를 위해 노력하신다.
4. '신위도원공덕모'라는 화엄경의 표현에서, 믿음(信)은 법신부처님에 대한 믿음이다.
5. 믿음(信)을 알고, 발보리심한 보살은 찰라지간에 성불한다.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했다.
6. 대연화라는 대약수는 보리심인데, 일체 질병과 자연재해를 이기는 약이 되고, 수명이 무수겁으로 늘어난다.
7. 앞으로 한국의 화엄사상은 전세계 정신문명의 새로운 빛이 된다.
8. 보현행원은 발보리심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법신부처님과 합일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9. 화엄경의 진실을 밝힌 소책자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바랍니다.
문의 : 010-7131-7084
화엄경 진실의 유통선양회

알기쉬운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7㎝: 7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288호 | 16 | 전면광고

욕심과 번뇌를 여읜 이는
부처님과 다를 바가 없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제법집요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대지 : 120평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외
◎ 매가 : 13억 5천

◎ 위치 : 경기
◎ 부지 : 50평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매가 : 6억 5천만원정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채권 채무상담 받습니다.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공양주,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사찰순례,채권상담,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나주 동강면
- 대지 230평(임대)
- 법당 20평. 산신각 10평
- 요사채 2동. 범종각
- 영산강 전망이 좋음
- 가액 : 3500만원

010-7637-125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194평. 건평 43평
-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 4층 건물에 3층, 40평
- 법당, 상담실, 방2, 주방, 화장실, 주차장, 옥상에 창고사용, 도시가스
- 보증금 1500만원 / 월세 50만원 (시설비 협의)

010-8695-6537

사 찰 안 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 평수 : 470평
- 가액 : 6억(절충가능) ●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 도시가스, 상수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쪽

010-3128-239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
- 대지 : 360평 ● 사용 가능 부지는 약 500평(하천 부지 포함)
- 법당. 삼성각. 약사여래. 3층 탑. 석탑 요사채 2개. 창고 3개. 주차시설 완비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3억 8천만원

010-4583-489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 전망 좋은 사찰
- 대지 : 350평
-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 2동(1동은 세집 월세받음)
- 많은 주차, 남향집, 도시가스
- 가액 : 11억 5천만원

010-3269-1023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 335평
-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 대단지 아파트 뒤 산속. 차량 진입 불가
- 3만평 중 5천평 지분 등기가능
- 가액 : 4억 6천(조정 가능)
- 무허가 건물 ➡ 종무소.삼성각. 용왕전.다실.창고 각각 한동
- 1층 화장실(해우소)/2층 공양간 /3층 법당(큰법당)

011-9394-8511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서동 미로시장 입구
- 2.3층 30평씩 2층법당 3층공양간
- 보증금1천5백 / 월57만
- 시설비, 영상통화 절충

010-8339-5525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 청통 부근 산을끼고 아주 조용한 사찰 단청, 주련 현판
- 총평수465평, 현대식건물2동
- 1층 요사 30평, 14평
- 2층 30평 법당
- 주차장 확보
- 가액 : 3억 9천만원

010-5804-5100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 시내
- 대지 200평, 법당 20평
- 요사채 40평, 산신각 10평
- 권리금 : 6천만원
- 사찰만 양도, 땅은 장기임대(문중땅 이라 양도안됨)

010-3323-7000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포천
- 대지 952평, 법당 목조단청 30평, 산신각목조단청 10평, 요사채60평, 주방30평, 주차장300평
- 위치및 접근성과 조망권좋음
- 가액 : 25억

010-5129-527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남구 송도동(절앞에는 소나무숲 공원, 절옆에는 바닷가(해수욕장)가 있습니다.) 공용 주차장 원만, 바닷가 앞까지 주차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 현시세는 평당1천2백만원
- 등기평수 33평, 실평수50평정도
- 가액 : 3억5천만원
- 양도 : 집기 일체 (즉시법회가능)

010-2104-1717

사찰 안 내

- 위치 : 부산 연제구
- 대지 : 123평, 건평 : 60평
- 법당외, 삼성각, 용왕, 호신불당, 마당6층 옥탑, 차고, 자연수(사철)
- 상수도, 뒤는산, 전면 좌우 주택지
- 가액 : 3억 5천

010-2720- 158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지하철 역세권 대도로접3층
- 약 50평, 도시가스, 옥상사용, 주변주차시설양호
- 보증금 500만, 월 45만
- 시설비 1300

010-7337-595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도량 약 1,200평
- 법당목조 20평, 관음전, 종각, 차실, 공양간, 요사채, 창고, 대형주차장
- 가액 : 2억 9천 5백만원
- 부득이한사정

010-4628-5699

사찰및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남 함안 칠원읍
- 법당 30평(주방, 해우소)
- 요사채 28평(방3, 주방, 해우소)
- 대지 115평, 임야 10평
- 가액 : 1억 6천

010-3906-3711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소재
- 대지 : 350평
- 건물 : 약 80평 (법당, 요사채)
- 가액 : 답사후 결정

010-7584-8338
010-5718-0073

별장같은 토굴 임대

- 위치 : 제주시(판넬주택)
- 임야 약1천2백평중 대지132평
- 법당(26평), 요사채(36평), 야외법당(약사여래불), 시설일체완료 (바랑만 메고 오시면 됨)
- 보증금 5천 / 월세 50만원

010-4846-3968

암 자 안 내

- 위치 : 영덕군 창수면 신리리 산4-1
- 법당, 산신각, 요사채 각 1동.
- 가액 : 3천 8백만원. (원매자 현장방문후 조정가)
- 문중땅 도지세1년 20만원.

010-5714-787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강서구 화곡동 남부시장옆
- 5층건물 2층 20평 남서향
- 권리금, 부가세 없고 주방시설 완비
- 보증금 150만 / 월 50만
- 건물주가 협조함

010-5381-1419

절 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구성면
- 용호리 835번지 / 836번지 836번지 : 약 300평, 835번지 : 임야 약 130평, 총 430평
- 암자 지어서 수행하실 분 (깨끗한 약수샘물 나옴)
- 사정상 급양도 3,700만원

010-7628-999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 2층에 2층, 약 80평
- 보증금 250만, 월 40만
- 시설비는 보시고 협의
- 16년 포교원 운영중

010-9422-1233

◆◆◆◆
포교원
구합니다
◆◆◆◆

010-5301-4949

사 찰 안 내

- 위치 : 포항 동해 앞바다 (전망좋음) ● 호미곶 광장부근 해수관음상(7자), 대지 : 230평(1층 요사채, 2층 법당)
- 가액 : 몽땅 3억 7천만원 (시설완비)몸만 오시면 됩니다.
- 꼭 하실분만 절충가능

054-482-6600

"살아숨쉬는 생명의 돌"
희담석 방석(고급형) 수량 한정판매~!!!

~~정가 198,000원~~ ➡ 할인판매가 120,000원



- 색상 : 살구색
- 크기 : 450mm X 450mm
※베개겸용 휴대용케이스 증정

희담 가루방석은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여도 원기와 활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평상시 꾸준한 운동과 더불어 희담 가루방석을 함께 사용하시면 기대 이상의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방법
- 의자나 자동차 등에 일반 방석으로 사용하기만 하여도 원기와 활력을 높여 줍니다.
- 수면시 베개 대용으로 쓰시면 빠른 피로 회복 및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 머리나 목 부위에 응용하면 머리가 맑아지며, 기억력 증진에 효과가 있습니다.
- 운전시 목 뒤나 허리에 끼워두면 피로를 줄일 수 있습니다.

판매문의 : 1688-9099 (02-732-1520)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의 궁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대구지사	손문철	M 010-2813-8008
부산지사	이도경	M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M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M 010-8642-7733
경남지사	성낙두	M 010-3860-7008
영주지국	박영애	M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0mm) 판매가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행 스님

자기 근본을 철저하게 믿는다면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겁날게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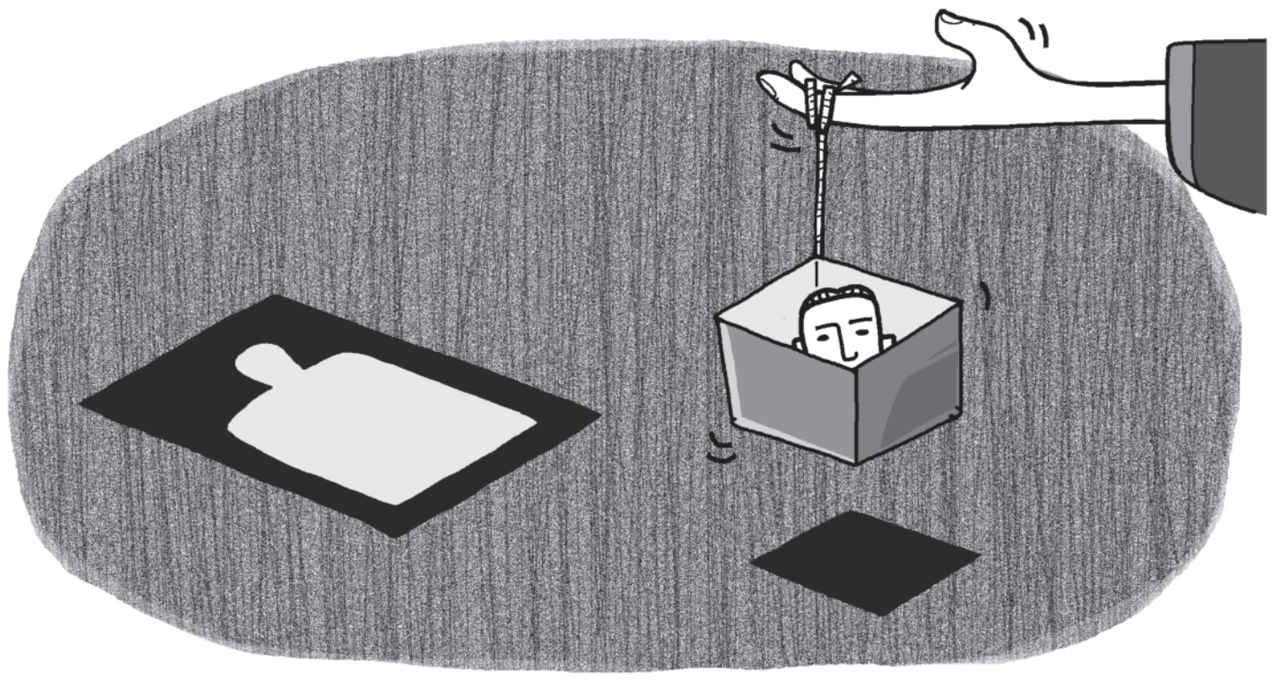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러분과 더불어 또 이렇게 한자리 하게 됐습니다. 법당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하고만 같이하는 게 아니라 우주 만물과 더불어 같이 한자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종교 저 종교 따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전체가 같이 이렇게 한자리를 하고 있는 공식(共食)이며, 공체(共體)며, 공생(共生)이며, 공용(共用)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독불장군은 없죠. 종교라는 자체가 바로 생활인 것입니다. 종교가 생활에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종교가 아니고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부처라는 이름도 없을 것이고, 부처라는 이름이 없으면 부처라는 그 길을 따라서 인간의 도리를 배울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아마 헤아릴 수 없이 참자기를 만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죽은 영령(英靈)들이나 산 사람들, 유체, 무체 이 모두가 차원이 높고 낮은 이런 문제들에 얽혀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온 줄도 모르고 그냥 묵묵히 당해야만 하는 그러한 그 고(苦)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여러분한테,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어디서 이렇게 고통이 왔는지도 모르는 여러분한테 길을 인도하는 나 자신도 어떤 땐 참 답답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마는, 그걸 답답하게 생각을 해서도 아니 되겠죠.

왜냐하면 몰랐을 때의 내 모습들이니깐요. 내가 언제 적부터 알았겠습니까마는 지금에 당해서는 여러분이 모르니까 답답해지죠. 죽은 사람 산 사람들이 그렇게 결부돼 있고, 태로 나는 거나 알로 나는 거나 또는 화(化)해서 나는 거나 습한 데서 나는 거나 모든 것을 한데 합쳐서 덩어리가 돼 가지곤 항상 돌아가니까 여러분은 그 고통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항상 되풀이하는 말 같지만 열 마디 백 마디를 되풀이하더라도 여러분이 침착하게 잘 들으셔서 그것을 응용하실 수 있다면 처음에는 그 고통이 삼분의 일로 줄어들고 나중에는 그 삼분의 일마저도 없어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온 줄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있는 이 자체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여러분의 그 고(苦)덩어리, 여러분은 지금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머니 아버지한테서 살과 뼈를 빌려서 집을 짓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나오기 이전에 자기가 했던 것만치 기록된 문서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올 때는 부모에게서 몸만, 집만 받아 가지고 나온 셈이니 그 의식 자체의 덩어리, 고덩어리는 자기가 한 것대로 고스란히 짊어지고 나온 것입니다. 짊어지고 나온 것이 고정되지 않았다면 또 별문제인데, 자기가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짊어진 그 종 문서를 태워버리지 못하니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한다 이겁니다. 예전에 종 문서가 있다면 그 집의 하인 노릇을 자식대대로 내려가면서 꼭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제도가 다 폐지되고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여러분 차원 그대로 종 문서를 면치 못한 채 지금 살고 계십니다. 그 문서를 짊어지고 나온 데서 옴쭉을 못 하니 그거는 종 문서나 한가지라 이 소립니다. 스스로 그 고덩어리 속에서 의식 자체가, 즉 말하자면 수십억 개가 차례차례로 들락거리면서 나고 들면서 자기를 괴롭히는데 그 고는 말로는 형용할 수 없으리만큼 괴롭습니다. 자기를 괴롭히기 위해서 식구들을 괴롭히고 식구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자기를 괴롭히고, 이 자체가 수없이 보이지 않는 데와 보이는 데가 연결이 돼서 돌아가니 너무도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니 뼈를 빌리고 살을 빌려서 집을 짓고 나왔으나 그 집 속에는 자기가 나오기 이전의 업식을 받아 가지고, 종 문서, 즉 기록 문서를 받아 짊어지고 나왔으니 옴짝달싹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들락날락하면서 들이고 내면서 바깥에서는 악의 세균을 끌어들이고 안에서는 안에대로 반란을 일으키고, 또 바깥에나 안에나 그러한 파워를 일으키는 문제들이 병고를 일으키고, 가난을 일으키고, 괴로움을 일으키고, 외로움을 일으키고, 허무감을 일으키면서 수없는 그 나날을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이, 즐거운 거는 잠시 잠깐이고 그저 걱정, 근심 이런 것만이 주어지게 합니다. 젊었으면 젊은 대로 늙었으면 늙은 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애는 애대로 말입니다.

이건 절대로 거짓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안 하면 안 하고 하면 하고 그렇게 됐던 것은, 부처님께서는 몸을 갈아서 재를 만들어서 뿌렸어도 그 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살아계십니다. 또 내가 여러분한테 길잡이 노릇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무조건 믿어 주셔야 한다 하는 것은 뭐냐. 현실의 생활에 직결돼 있고 생활에서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살면 죽고 죽으면 살고" 이랬는데, 예전에도 얘기했죠. "본래 살아 있기 때문에 본래 죽어 갈 것이 없다."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은 영원한 것입니다.

몸뚱이는 집과 같아서, 우리 밥 해 먹는 솥과 같아서, 음식을 만들어 내놓는 오븐과 같아서 그런 것이 부서지면 새 걸로 갈 뿐입니다. 여러분이 물건을 사다가 간수를 잘해서 잘 쓰면 조금 오래 쓸 거고, 간수를 못하면 얼른 망가지고 얼른 갈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몸뚱이를 부모한테서 받았건만 자기 거라고 해서 마음대로 굴립니다. 그리고 부모가 뭐라 하면 "그런 건 왜 참견을 합니까?" 이러거든요. 상관하지 말라는 거죠. 그 물건을 받은 것도 잘 보존을 함으로써 부모에게 효도도 할 수 있으며 충성하고도 우리 부처님 법도 따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착한 마음이 나오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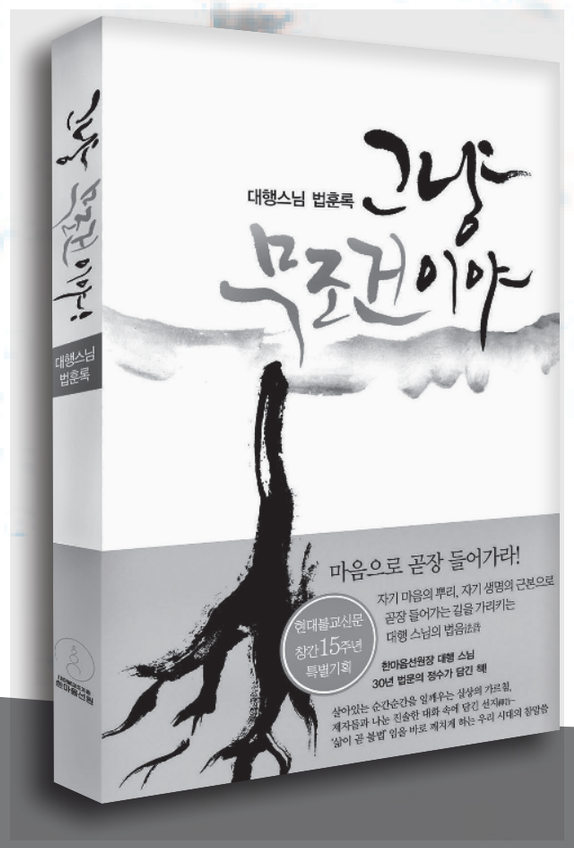
우리가 지금 항상 결부되고 있는 시급한 문제는, 자식은 부모가 빨리 죽으면 안 된다, 또 부모는 자식이 나를 두고 빨리 죽으면 안 된다, 죽는다면 또 얼른 죽었으면 좋겠는데 질질질질 끌고, 그냥 재산을 다 없애고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놔두고 이렇게 해서 풍비박산을 만드는 이런 병고에 휘달리고 가난에 휘달리고 이래서 식구가 다 병이 들듯이 이렇게 된다면 아니 된다는 철저한 그런 생각에서 고통을 받죠.

언젠가 한번은 어느 분이 내게 이렇게 말을 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럭하고 있죠. "스님, 병명이 영 나오질 않고 모른다고 그래 가지고는 몇 달을 기다려 보라고 해서 기다려 봤더니 폐암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되겠습니까? 살려 주십시오. 우린 육남매나 됩니다. 그런데 출가는 하나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나는 두 살 때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가 새장가를 들어서 사셨는데 처음 들어온 새어머니가 너무해서 외할머니 손에 자라서 이렇게 여직껏 살고 있었습니다마는, 살다가 이십 안쪽에 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외숙모 손에 자라다 보니까 무지한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죽으려고도 수차례 했지만 죽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생 고생을 하며 살다가 겨우 인제 집이라도 한 칸 지니고 살 만하니까…. 또 제가 모자라서 그랬던지 웬 자식들은 육 남매나 되고,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그 자식들도 기르질 못하고 아내도 고생만 시키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만 옳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말을 하면서, 눈시울도 찌푸리지 않으면서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전자에 내가 그 사람의 부모가 돼 가지고 일찍 그 자식들을 두고 죽은 것 모양 얼마나 딱하고 불쌍했던지 모릅니다.

그랬는데 그 순간에 불쌍해서 그 집에 가서 보니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 이런 사람들이 전부 윗대에서 6 · 25 때 방 안에다 잔뜩 가둬 놓고 불을 질러서 전부 태워 버린 거야. 그런데 그 영령들은 비슬비슬하면서 그 의식을 그냥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 버리는 흉내를 내면서 그 집의 방에 잔뜩 와 앉았더라 이거야. 이런 건 끔찍한 일이지마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여러분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해야만 합니까! 물론 선조 대로 그것을 잘못하려고

☞ 18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mahamall.co.kr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마하몰

자기가 한 것대로 짊어지고 나온 데서 들고 나는 것에 속지 말라

☞ 17면에서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들도 죽겠으면 그 집의 방에 죽들 와서 앉았겠습니까? '날 좀 아픈 것 좀 낫게 해 줄 수 없느냐?' 해서 어디로 갈 데는 없고 인연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식이라는, 손주라는 인연이, 의식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와 있을 수밖에는 없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아무리 애를 쓰려고 그래도 아버지가 해 놓은 게 없고, 아버지가 지금 시쳇말로 하면 기술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도저히 그 아들을 살릴 도리가 없어. 그래서 만약에 그분네들이 열 분이라 할지라도, 백 분이라 할지라도, 한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한테 항상 가르치죠. 주인공에 모든 것을 '주인공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거기다 맡겨라. 이렇게 되면 이 물그릇에다가 물 열 방울을 갖다가 넣으니까 이게 (법상 위의 물컵을 들어 보이시면서) 두드러집디까? 그냥 한 컵의 물입디까? 이걸 대답해 보십시오. 한 컵의 물이죠. 그래서 방 안에 있던 그 조상님들을 내 물 한 컵에다가 다 넣으니까 한 컵의 물이 되더라 이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한 컵의 물이 되니까 그 방 안은 깨끗해지고 그 불쌍한 그분은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강원도 어디에서 살고 있죠.

허나 사람이 살고 죽고 그걸 떠나서 인간으로서 은혜를 알고 진정한 사랑을 안다면, 조상과 부처와 둘이 아니라는 그 뜻을 알게 됩니다. 부처도 조상이요, 조상도 부처다 이런 소리가 있죠. 그건 뭐냐 하면은 부처님의 뜻은 모두가 자식이요, 모두가 자기요, 모두가 자기 부모니깐 자기 물 한 컵에다가 다 집어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이 물을 다 준다 하더라도 줄지 않는 그러한 묘법의 법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속을 뚫어지게 알 수 있고 그런 것을 체험을 하고 알 수 있어야지, 자기가 체험을 안 하고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승화시키지 못하고 자기가 나투지 못하고 둘 아님을 모르고 이러한 문제를 경험해 보지 못한다면 이러한 이치는 까맣게 모릅니다.

우리 신도 한 사람도 허리가 아프고 삐뚤어졌는데 궁둥이도 그냥 이렇게 일그러져 가지고는 아프다고 별짓 다 했죠. 그래서 누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라고 그러길래 그랬대요. 간다고요.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랬습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참, 입산을 해서 행자 노릇을 하고 중노릇을 하다 군대를 갔다가 그만 속퇴를 했다 하더라도 네가 그냥 갈 수는 없지 않느냐? 너는 지금 병이 아니야. 너를 테스트하는 그 기간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깥으로 그렇게 떠돌면 언제 너를 발견하겠느냐!" 그러곤 했더니만 "그래도 좀 갔다 와야겠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러고 갔죠. "깨끗하고 하나도 이상이 없답니다." 이러거든. 그런데 그게 병입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법은 그렇게 묘하고 광대무변해. 여러분은 아프다고 그것이 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공부하는 과정의 테스트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겁도 나지 않아. 하나도 겁나는 게 없어.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철저하게 믿기 때문에 그까짓 것 겁날 것도 없고 또 진짜 죽는다 하더라도 겁날 게 없어, 진짜 죽는다 하더라도. 오른이 망그러져서 오른을 다시 새 걸로 바꿔다 놓는 거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걱정이 되느냐 이거야. 여기 어떠한 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금부터라도, 아까까지는 생각을 그렇게 했었어도 한생각이 중요해, 한생각.

한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생각이 자기를 구덩이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묘법이 스스로 돼 있다 이거야. 여러분이 여러분을 창살 없는 감옥에다가 옹쳐매 놓고 있고, 병자로 옹쳐매 놓고 있는 거지 누가 병을 갖다 준 겁니까, 뺏어 갑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달린 거라. 과거 자기가 한 대로 문서를 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가난과 병고와 그 모진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한생각에 그 고통과 그 문서를, 종 문서를 한꺼번에 태워 버릴 수 있어.

여러분이 여러분을 창살 없는 감옥에다 옹쳐매 놓고 있고
병자로 옹쳐매 놓고 있는 거지, 누가 병을 갖다 준 겁니까?
여러분 한생각에 그 고통과 종 문서를 한꺼번에 태워 버릴 수 있습니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실도 없다 이랬죠? 왜 그런가? 한 찰나의 살림살이기 때문이다. 여러분한테 항상 말하죠. 우리의 살림살이는 한 찰나요, 한 인생 살아나가는 것은 한 철이라고. 여러분이 한 찰나의 살림살이를 지금 하고 가는 겁니다. 요리 변덕 조리 변덕, 변덕쟁이거든, 변덕쟁이. 도깨비장난, 귀신장난감 이렇다고. 그러니까 그걸 말로 하려니까 그렇지 여러분은 변동이 무쌍해.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공(空)에 들어서 가만히 있다면 그건 목석인 거야. 또 너무 말을 하고 너무 아는 척을 해서 한데 떨어뜨린다면 그건 귀신이야.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정상적으로 그냥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내는 거야, 그냥. 거기도 걸리지 마라. 생각이 자꾸 나걸랑은 그대로 그냥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니까 버려두라고. 버려두는 거지. 왜? 자기가 이렇다 저렇다 할 자리가 아니야. 아무것도 붙지 않는 자리라고. 그런데 여기서, 괜히 고(苦)덩어리 속에서 그 의식이 들고 나면서 괴로움을 주고 또 즐거움을 주고 이러니까 즐거웁더라도 빙긋이 웃고 말고, 괴로웁더라도 빙긋이 웃고 말고…, 거기서밖에 해결 못 하니까. 이열치열, '네 속에서 나온 거는 네 속에서 해결해야지 딴 속에서 해결 못 한다. 나는 거기에 속을 필요가 없어. 네가 무체(無體)로서, 즉 말하자면 큰 부처로 보이더라도 난 거기에 속지 않아.' 이렇게 속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 전자의 종 문서에 의해서 자기가 한 것대로 짊어지고 나온 데서 들고 나는 것에 속지 마시라 이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좋은 소리가 들린다 하더라도 거기에 속지 말고, 말하자면 세 가지를 똑바로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는, 나도 마찬가집니다. 말, 뜻, 행 이 세 가지가 동일하게 진실한지를 알게 되면 그냥 따르라고 그랬지, 믿으라고 그런 게 아니야. 따르라 이거야. 왜 따르라고 그랬느냐. 그건 당신네들 주인공 안에 나와 더불어 같이 모두 일체 만물만생이 다 같이 한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지.

또 한 가지는 전에 어느 분이 날더러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스님, 스님이 그렇게 잘 아신다면 왜 지금 노사분규나 또 학생들이 이렇게 벌낫 휘두르듯 하고 미친 듯이 이렇게 날뛰게끔 하고 나라가 위태하게 합니까?" 이러거든. 모르는 그 사람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부처님 법은 이러이러하니까 이렇다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말을 했죠. 나쁜 거 좋은 거 이런 거를 모조리 체로 쳐서 골라 내려면 모든 국민들이 나쁜 거 좋은 거를 다 알아야 그때는 스스로 체에 쳐져. 그러니 자기가 나쁘면은 국민들을 우롱하게 되고 국민들에게 나쁘게 된다면은 스스로 체에 쳐져서 그냥 밀려서 저 땅으로 내버려지게 돼 있고, 알쭌하게 알맹이, 요 가루는 다 이렇게 체로 쳐지고 아, 그 무거리는 다시 찧어서 먹게끔 또 된다 이거야.

이것이 바로, 한 솥에 죽을 쑤어서 죽이 펄펄 끓을 때에, 부글 부글 부글 끓어 오를 때에 그 방울방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모두 이 세상 돌아가는 게 그러한 거라. 이 나라에선 이렇게 나오고 저 나라에서 저렇게 나오고, 한 나라에서도 내가 잘나고 내가 못나고 이렇게 모두 팥죽 솥에서 팥죽 끓어 오르듯이 오르는 겁니다. 그럴 때에 만약에 팥죽 쑤는 사람, 주걱을 든 사람이 있다면 그저 그냥 불룩하게 올라오는 건 치고, 안 올라오는 건 올리고, 흥, 그거 주걱이 다 하는 거죠, 뭐. 그래서 그 주걱은 오르는 건 때리고 안 올라오는 건 오르게 그저 평등하게 하면서, 체로 거르듯이 그냥 주걱으로 휘 휘 저어서 맛있게 끓여서 다 먹을 수 있게끔 해 놓을 때까지는, 바람이 어디로 불든지 그것이 상관이 없다 이 소립니다. 그거는 오히려 바람을 불게 해야 체로 거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정말이지 이 권도법(權道法)이란, 대권도법(大權道法)이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참 광대무변하고 묘하고 그렇게 귀중하고 보배인 것입니다. 누구는, 부처님이 왜 자기가 태어난 데를 그렇게 망가뜨려 놓고 그랬을까? 예전에도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마는 그거는 망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그 나라가 만약에 밥 짓는 솥이라면 그 밥을 짓는 사람들이 솥을 망가뜨린 거지, 부처님이 그 솥을 망가뜨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솥을 망가뜨려 봐야 '밥 지을 때 참 필요한 게 솥이구나.' 하는 걸 알게 만들기 위한 그것도 길잡이의 한 방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문제도 여러분이 이 주관만 튼튼히 세워서 진실히 맡겨 나간다면 다 해결이 되어진다고 봅니다.

주인공이라 하는 것은 찰나찰나 돌아가기 때문에 전체 돌아가는 거를 주인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이 없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근본이 당신이지. 응?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하다, 우주의 어떠한 것이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아주 조그맣고 하치못한 여러분의 마음의 근본이 제일 귀중하고 보배인 것이고 높습니다. 그 조그마한 보이지도 않는 그것이 바로 우주를 삼킬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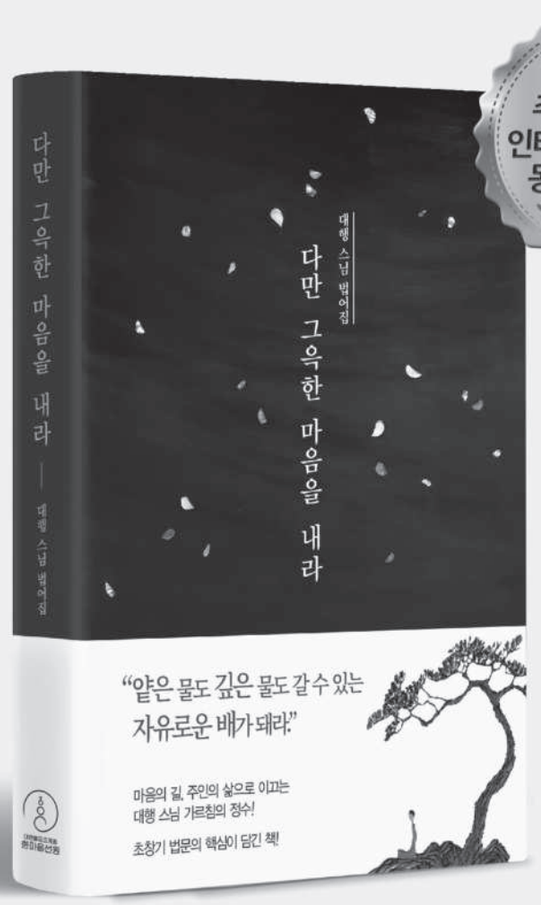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달세계나, 은하계나, 어떠한 태양계도 바로 둘이 아닌 까닭에 지금 현재에 양 개체가 합류화된다면 전자와 원자, 양자가 같이 혼합이 돼서 중성자가 된다면, 그 위력이 우주를 집어삼키고도 남음이 있는 위력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승화시키고, 체험하고 이래서 둘이 아님을 깨닫고, 둘이 아니게 나툼을 깨닫고 그렇게 된다면, 둘이 아니게 나툼을 깨닫는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육십이견(六十二見)도 그렇지만 삼십이응신(三十二應身)이 충만하다 하는 것도, 그건 숫자가 아니라 과거심(過去心) 현재심(現在心) 미래심(未來心), 삼세심(三世心)을, 삼세 대천세계(大千世界)를 넘나들면서 자유권을 갖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다면 지금 태양계나 어떠한 은하계도 그 중성자의 뜻이라면 은하계의 법왕이 내가 될 수 있고 태양계의 법왕이 내가 될 수 있어. 그래서 그 자료를 마음대로 가지고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구름과 안개도 전부 내 통신기가 되고, 바로 내 신장이 되고, 내 제자가 되고, 내가 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우주 법계의 모든 것을 평등하게 해 나갈 수 있는가 하면, 평등하게 하려니깐 아까도 주걱이 하듯 그 주걱으로써 모든 일들을 해 나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바람도 일으키고, 바람을 일으켜야만이 체로 쳐지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국난을 면하게 하고 안타까운 걸 면하게 하고 또는 우리 국내의 재정이나 또는 국내에 어떠한 문제가 닥쳐오는 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톡톡한 자기의 보배를 가지고 있고 갖추어 가지고 있는 질량을 마음대로 사용해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것이니까 닥치는 대로, 자기 소용 닿는 대로, 용도대로 전기도 많이 쓰려면 많이 쓰고 적게 쓰려면 적게 쓰는 용도가 여러분 앞에 닥쳐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도대로 쓰시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전력을 보지 못하고 전깃줄만 보고 전기 들어오는 것만 본다면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전력이 있다는 건 믿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전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 불이 들어오고 전깃줄이 가설이 돼 있다는 걸 아셔야죠. 가설이 된 거, '아이, 저거 뭐, 줄만 있고 저렇게 하는데 전력이 있긴 뭐가 있어?' 이렇게 믿지 않으신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생활에서 연결이 되고, 생활에서 아주 맞돌아가고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도 맞돌아가고 있고 천당 지옥이 맞돌아가고 있고, 살고 죽고가 맞돌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맞돌아가는데, 맞돌아가기 때문에 귀신이고 선신이 따로 없고, 중생 부처가 따로 없고, 천당 지옥이 따로 없고, 여자 남자가 따로 없고, 동서남북이 따로 없고 모두가 그러한 도리를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앞으로 우리들이 겪어 온 그 하찮은 오백 년 역사를 또다시 겪지 않고도 우리는 좀 더 생동감 있고 좀 더 위력 있고, 좀 더 승화시켜서 앞으로의 역사를 가져오게끔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걸로써 마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1989년 4월 16일 정기법회 법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 주요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동시 판매중!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 스님 법문의 정수가 담긴
2019년 최고의 결정판!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초창기 법문의
핵심을 모아 한 권으로 엮은 책

삶의 지침이 될 지혜의 가르침들이
내 마음에 꽃이 되어 피어나다!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양장본 | 총 384면 | 책값 18,000원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무진향 031)470-3118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용수 스님의 아침편지

우린 이미 행복한 존재

인생이란 꿈을 이루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꿈을 이루고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금은 막연한 스스로의 약속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의 끝없는 추구는 어쩌면 커다란 속임수일 수 있습니다. 행복을 찾지 말고 행복으로 살아야합니다. 우리 자체가 우리가 찾고 있는 행복이에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행복은 '찾을 것'이 아니라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찾는 것을 멈추세요. 멈춤, 여기에 행복이 있어요. 무엇을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려서 행복한 것입니다. 꿈꾸는 것을 그만하고 삶을 사는 겁니다. 삶은 연습입니다. 깨어있음을 연습하세요. 만족과 감사를 연습하세요. 사랑을 연습하세요. 당신이 사랑입니다. 당신이 깨달음입니다. 더 바랄 게 있을까요?





진광 스님의 길 위의 풍경들

⑦ 동티베트– 야칭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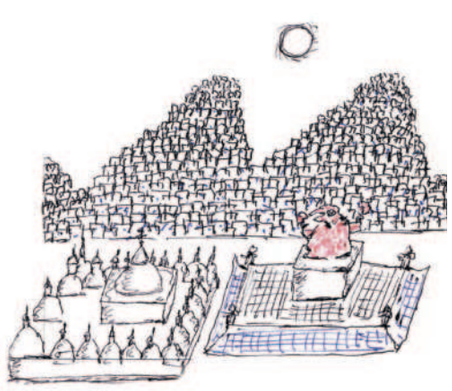
야칭스, 눈부시게 아름다워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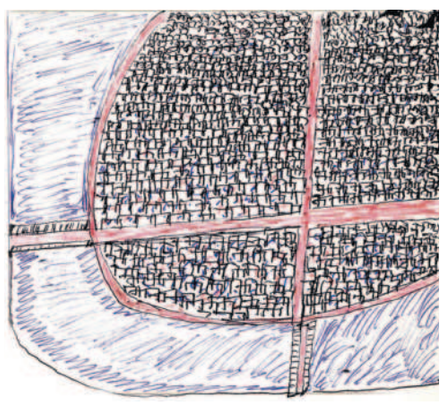
야칭스(亞靑寺), 그 얼마나 가보고 싶었던 꿈의 장소이던가! 간절히 원하기만 하면 꿈은 이루어지는 법이다. 드디어 야칭스를 만나러 부푼 가슴을 안고 길을 나섰다. 간쯔를 출발한 버스는 해발 4000m의 고원을 오르내리며 야칭스로 향한다. 들녘에는 노란 유채꽃밭의 황금물결이 한창이다.

가는 길에 눈이 부시도록 푸르른 호수가 보이는 언덕 위 초원에 잠시 멈춰 휴식을 한다. 푸른 하늘아래 초록의 대지위에는 온갖 야생 들꽃의 향연이 끝도 없이 펼쳐진다. 초원 위에 순례 대중 스님들의 해맑은 눈빛과 미소가 가득하니 그야말로 화장찰해가 따로 없다.

야칭스에 다다르자 길가에 줄을 지어 걸어가는 티베트 스님들의 행렬이 자주 눈에 보인다. 맑은 눈과 미소를 지은 채 행복한 얼굴들이다. 야칭스 입구에 도착하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들어가지 못한 채 마냥 기다리게 한다.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들어가지 못하면 큰일인데 하는 생각이 든다. 모든 대중이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한 마음으로 염원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2시간여의 지루한 기다림 끝에 중국 공안을 대동하고 드디어 야칭스로 들어간다. 간쯔 장족자치주는 '캄(Kham)'이라 불리던 동티베트 지역으로 1956년 중국 쓰촨성에 편입되었다. 이곳 백옥현에 위치한 야칭스는 티베트 불교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성지이자 최대의 수행처다. 해발 3,900m의 황량한 고산지대 구릉에 위치한 야칭스는 닝마파에 속하는 스님들이 불학을 연찬하고





야칭스 비구 스님 토굴(사진 왼쪽)과 비구니 토굴(사진오른쪽)의 모습.

수행하는 성지이다. 이들은 붉은 가사와 모자를 착용해 홍모파라 불리며 결혼이 허용되고 비구니 스님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야칭스는 1985년 라마야추 린포체가 이곳에 사원을 세우며 시작 되었다. 그 후 각지에서 많은 스님들이 린포체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모여 들면서 집단 수행 공동체가 형성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비구니 스님 7000명과 비구 스님 3000명 등 1만 명이 넘는 스님들이 거주하며 수행정진하고 있다. 대규모 쪽방촌이나 난민촌을 연상시키는 비구니 스님 거주지에는 3~4평 크기의 수많은 판자집이 성냥갑처럼 다닥다닥 붙어있다. 거주지 주변을 태극 문양으로 휘감아 도는 야룽강(雅江)의 지류로 인해 멀리서 보면 마치 섬처럼 보인다.

1985년 라마야추 린포체 설립
스님 1만명 모인 수행 공동체
엄혹한 환경 속 신심에 '감동'

매일 오전 언덕에서는 수많은 학승들이 불법을 듣고 강가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아침 수행을 하며, 넓은 들판에서는 대법회가 열리기도 한다. 스님들 개개인이 집을 짓고 숙식을 책임져야만 한다.

중국 정부는 이곳에 스님들이 모여드는 것을 막기 위해 하루 단 2시간만 전기를 공급하고 철거를 하는 등 탄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력이 종교를 강제하고 억압할수록 종교는 더욱 꽃을 피우게 마련이다.

야칭스 방장 스님을 만나 선물을 주고받고 차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지도법사 정우 스님이 열악한 화장실 사정을 듣고 흔쾌히 화장실 불사를 해 주겠노라고 제안했다. 환영식을 마치고는 경내 호텔에서 점심 공양을 하였다. 이곳의 스님들에게 불편을 주지 말고 그냥 가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공안대장을 접촉해 설득한 끝에 언덕 위 파드마 삼바바 동상 앞에서 30여분 간 의식을 치룰 수 있게 허락을 받아냈다.

눈이 부시도록 푸른 하늘과 초원위의 지천으로 피어난 들꽃의 향연 속에 거대한 파드마 삼바바 동상이 자리한다. 그 앞에서 가사장삼을 수한 채 순례 대중은 예불과 반야심경 독송에 이어 정운 스님이 쓴 발원문을 봉독했다. 야칭스 성지가 길이 보존되기를 바라는 한결같은 마음이 아니었나 싶다. 그리고 초원위에 정좌한 채 오랫동안 참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시간 동안 하늘과 바람과 꽃과 초원, 그리고 야칭스 사원과 스님들을 떠올리며 참으로 많은 생각과 함께 새로이 신심과 원력을 다지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1시간여 의식을 마친 후 언덕위에 우두커니 선채 야칭스 전경을 바라본다. 저들의 삶과 수행을 보면서 알 수 없는 눈물과 희열이 교차한다. 이런 엄혹한 환경에서도 저리 열심히 수행하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였는지 모르겠다. 실로 한없이 부끄럽고 욕되기만 하다.

이를 계기로 환골탈태하는 마음으로 내 삶과 수행을 점검하고 새로운 길과 희망을 찾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니 할 수만 있다면 이 곳에서 한평생 태어나지 않은 셈치고 공부하다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고 떠나야만 하기에 영원히 잊지 않도록 다시 한번 야칭스를 두 눈과 가슴에 오롯이 담아 본다.

야칭스를 떠나가는 길에 이곳의 스님들은 도리어 어디를 갔다가 돌아오고 있다. 석양이 질 무렵에 삼삼오오 한데 모여 귀사하는 모습은 눈물겹도록 아름답기 그지없다. 그 뒷모습과 힘찬 발자국이 야칭스의 영원한 희망이라 믿는다.

불학원에서 만난 한 비구니 스님의 영롱한 눈빛과 결연한 입술, 그리고 환한 미소가 내 가슴에 선연히 남는다. 동자승의 맑고 고운 눈동자와 환한 웃음소리가 내 귀에 역력하기만 하다.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삶과 수행을 이어가는 그들 모두가 진정한 보살이자 수행자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므로 불법과 진리가 세상에 영원 하듯이, 야룽강의 물이 마르지 않는한 야칭스와 수행전통도 우리들의 가슴속에 영원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 순례 대중도 이곳에 마음 한 자락을 남기운채 떠나간다.

〈조계종 교육부장〉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그림 족자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 진언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卍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중의 '못자못자' 확대사진



42수진언 족자 중의 '여의수주 진언' 확대사진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80,000원	
	사찰용 65×145cm 가정용 45×110cm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특별증정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판매처 : 마하몰 ☎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제보 합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불 · 법 · 승 정법 실천도량

연등사(선재불교대학) 도안 합장

경남 거제시 연초면 천곡1길 62 (충해공원 내)
☎ 055)633-6555

안녕하세요?
저는 거제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로써 남편과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주부로써 제보하고자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가끔 절에 스님 법문 들으러 가지만 개종을 하지 않은 기독교인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 딸이 10대에 부산 대형병원에서 조현병 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는 순간 저희 가정은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빠져 가족 전체가 무너져 내릴 때 현대의학 (당시 완치될 수 없는 병이라고 했음)을 비롯해 종교의 힘까지 빌리고자 했습니다.

유명한 의사, 한의사, 전국의 목사, 전도사, 유명한 대형사찰, TV에 출연했던 무당, 퇴마사, 기 치료사, 최면술 권위자 등등.... 물, 불을 안 가리고 전국을 찾아 그들이 하라는 대로 다 했으나, 결국 돈과 시간만 낭비하고 희망이 없음을 알고는 아이와 함께 자살을 결심하고 있을 즈음에 지인의 소개로 스님을 만났고 그 때부터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제 딸 자랑을 잠깐 해 보겠습니다.
조현병을 앓았었던 제 딸은 대학 입시를 앞둔 어엿한 숙녀로 자랐습니다(현재 대학 2년생). 학교에서도 모범생으로 공부도 잘하고, 영어, 중국어, 일어 등등....
외국인과의 대화도 능숙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상도 매번 타오며, 또 얼굴도 예뻐서 학교 모델로도 선정되어 인기가 많답니다.
처절한 지옥 속에서 살다가 이제 천국에 온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겪고 싶지 않기에 다른 분들께도 살 수 있는 길을 사례자로써 알려 주고자
이렇게 용기 내어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TV등.... 방송에서 종교를 빙자한 성직자들이 저와 같은 가족전체가 환란에 젖은 이들을 상대로 구원(가피)을 조장하며 사기를 쳤던 내용이 방송 (SBS, KBS, MBC, TV조선, 세븐 등등.....)을 많이도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스님은 그 방송국을 나무랄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점을 드러내 주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고 하면서..... 그들이 불보살 이라고.....

곰팡이는 음지에 숨길 것이 아니라 양지인 햇볕에 들어내어야 한다고..... 항상 법문시마다 이 말씀을 꼭 하십니다.

*그리고 스님은 비불교적인 것 (사주, 철학, 점, 삼재, 부적, 고기방생, 성지순례, 인등, 큰 등, 작은 등, 대학 합격기도, 승진기도, 재수기도, 철야기도 등등...)은 무당들이 하는 것 이라며 일체 하지 않으시고, 그런 것 할 돈으로 병원과 이웃을 찾아 꺼져가는 생명(수술비가 없어 희망이 없는 이)을 살리는 일에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며 **불우이웃 돕기에 적극 동참**하라고 하십니다. **오로지 생명보다 중한 게 없으니 생명 살리는 일에 앞장서라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막대한 돈을 써가며 멀리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성지순례 같은 것하지 말고, 물고기 방생한다고 부산을 떨지 말며, 그 시간에 아이들과 같이 노부모 · 형제들 찾아 효도와 우애를 다지는 게 **복 짓는 일**이라고, 그럼 우리아이들이 보고 배울 것이다 고 하십니다.

어린 아이한테 물어보라면서 물고기 방생이 중한지, 인간 생명방생이 더 중한지..... 제발 좀 부끄러운 짓 하지말자고 하십니다.

*스님은 법회 시 법문을 하시면서도 절대 **절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러시냐? 고 여쭤보면

“여러분이 주인이고, 나는 머슴에 불과하다.”고... 하시면서 경전에 부처님은 한 평생 거지로 사시면서 80세 노구임에도 직접 하루도 빠지지 않으시고 탁발을 나가셨다고 누차 강조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좋은 과일, 좋은 공양물과 심지어 돈까지 불전함에 넣으면 그것을 누가 먹고 누가 씁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주인이고, 이 스님은 머슴이**기에 절을 여러분이 할 것이 아니고 내가 감사의 표시로 절을 해야 한다. 고 항상 말씀 하시면서 지금의 절집 출가자들은 아방궁같은 절집, 고급승용차, 고급 가사장삼 등등 전도된 생활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스님은 절 창건 시에도 일체 시주금을 받지 않았고, 지금도 그런 돈은 받지 않으며, 절에 필요한 일부 공양물은 지리산인근에 텃밭을 빌려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절 집에 필요한 모든 가구나 생활용품은 길에서 주워다 쓰시고, 아직도 양말을 비롯 모든것은 직접 기워서 쓰시면서 아나바다를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신도님들 보고 양말을 버리지 말고 기워 신을 것을 종용하며 한 켤레 기워 신었으면 새 양말 한 켤레를 이웃돕기에 보시하라고 하십니다.

*스님께서는 인간 극장이나, 스타킹, 세상에 이런일이 등등 TV등에서 시한부 환우들이 투병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 종교를 가리지 않고 전국 어디든 수소문 해 찾아가서 일부 신도님들과 같이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 마다 신부, 목사님들은 수없이 다녀갔다는데 **스님은 처음**이라고 같이 동행했던 신도님들이 직접 보고 들은 데로 얘기합니다.
가는 곳 마다 우리스님이 처음이라고.... 말은 대자대비하면서....

*여기 연등사는 다른 종교 집단과 달리 신도회 조직 등등..... 을 절대 만들지 않으며, 무조건 3년만 부지런히 이 스님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배우러 오라는 것입니다.

TV등 방송에서 성직자들의 말잔치, 글잔치에 놀아나지 말라고 하시며..... 그럼 왜 3년이냐? 고 여쭤보면 인간이 3년이면 됐지.....
서당 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데..... 인간이 개보다 못해서야 되겠냐? 고 하십니다. 절은 말을 배우러 오는 곳이 아니고, 실천행을 배우러 오는 곳 이라고.....

*그래서 2018. 10. 7.에 연등사에서 [부처님 가피(구원)는 있는 것인가?]
{그럼 당신(종교인)은 길에서 환우(조현병, 말기암, 희귀병)를 만나면 어떻게 하실 건지 종교인으로서 말을 해야 할 것이다.} 라는 주제로.....
시한부에서 새 생명을 얻은 이들의 일부 발표와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즉문즉설의 장을 열었던 것이고, 이에 연등사에 모였던 사례자들이 **종교를 등에 업은 거짓 종교인(수행자)에게 속아 재물과 정신은 물론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늦게 연등사에 왔지만 알고 보니 전국에 수많은 환우들이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얼마 전에도 담도암 · 담낭암(3기) 환자를 비롯, 각종 말기암 · 전이된 환자(암 1기, 2기는 제외) 들과 희귀병 환우들이 스님의 기도를 받고 살아남은 것을 직접 많이도 보았습니다. 그 중 크고 작은 절 스님들도 기도 받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아울러 모든 자료는 병원 개인 신상 모두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스님은 기도 시 신도님들 보는데서 신도님들과 같이 더불어서 기도하시기에 우리 모두는 항상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불가항력적인 코로나가 삼재의 일환으로 불안과 죽음의 공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연등사 스님과 같이 바른 수행 하시는 분들의 불가사의한 수행력(법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할 때인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는 해마다 **입춘 법문 시 절 집에서 경전 어디에도 없는 띠 삼재 · 거기에 따른 삼재풀이 기도 · 부적은 불교를 망가뜨리기 위해 마왕의 제자(대반열반경 참조) 들이 하는 짓이라고 항상 말씀**하시며, 올 입춘 때도 스님은 법문 시 **불교의 삼재(불교 사전 참조)는 대삼재와 소삼재로 나누며, 대삼재는(화재 · 수재 · 풍재)이며 소삼재는(도병제 · 질병제 · 기근제)이다.**
이는 모두 우리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자연의 재앙이며, 시기는 겁 말(말세: 금강경 및 경전 참조)에 일어난다고 듣기 싫을 정도로 자주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질병제의 이 일을 예견하시고, 여기 바른 신행 생활하는 신도님들을 위해 기도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님은 바른 정법만을 추구하다 보니 협박 (문자, 전화)을 받고 있습니다.
가끔은 격려의 전화도 오지만, 협박이 더 많답니다.
바른 말씀과 부처님의 바른 정법을 실천하시는 스님! 또 많은 생명을 살리시는 스님께 고개는 숙이지 못할망정 그런 전화를 하다니 이해가 잘 안갑니다.

아울러 기도와 관련해서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 들은 주소, 이름 등 연락처를 주시고 동참금은 정성껏 입니다.
동참금 전액은 신문사 지면을 통한 바른 법공양을 알리기 위해 쓰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이지만 스님의 사상과 바른 소리에 박수를 보내면서 **이 세상에 맑고 밝은 스승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여기 사례자들을 대표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금년 3월20일 ‘sbs궁금한 이야기Y(488회)’에 방영되었던 두 아이엄마의 조현병 사례를 보시고 혹 거처를 아시는 분은 연락 바라며 큰 아들마저 정신병원에 다니는 모습을 보고 꼭 좀 찾고 싶어 합니다.**

※ 접수처 055-633-6555 (010-3143-5302)
연등사(선재불교대학) | **도 안 합장**
경남 거제시 연초면 천곡1길 62 (우:53211)

사례자 연락처
- **010-3143-5302 (윤 ○○)**
- **010-5699-3173 (박 ○○)**
- **010-8291-9423 (변 ○○)**
- **010-9707-4808 (박 ○○)**
- **011-9143-0098 (김 ○○)**
- **010-4807-6932 (박 ○○)**



❖ 본 내용은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